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HELLO NEXEN



NEXEN facebook



www.nexentire.com

HELLO NEXEN
Vol.66 2017년 신년호

CONTENTS

2017 Vol. 66



표지 이야기

2017년 <헬로우 넥센>의 콘셉트는 'T.I.R.E.를 말하다'입니다. 첫 글자이자 신년호 주제인 T는 Teamwork(팀워크)를 의미하지요. 신년호에서는 넥센타이어 직원들이 보여준 팀워크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아왔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옆자리를 지켜주는 동료들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신년호 표지모델로 나선 신입 사원 7인이 앞으로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보내 주세요. <헬로우 넥센>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NEXEN TODAY

04 포커스 온 넥센

한눈에 보는 국내 인쇄 광고 변천사

08 줄인 넥센 1

행복한 1사 1촌

10 줄인 넥센 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동, 마라톤

12 줄인 넥센 3

8억불 수출탑 수상

14 줄인 넥센 4

영화관 內 브랜드 홍보관 운영

16 넥센 뉴스

넥센타이어의 이모저모

22 베스트 파트너

타이어테크 길병원사거리점

26 넥센 어라운드

서울사무소 한마음 등반 대회

30 넥센 갤러리

우리 집 사랑둥이를 소개합니다

34 피플 & 피플

칭찬합니다



NEXEN TOGETHER

38 스페셜 테마

우리의 팀워크

40 스페셜 테마 1

우리는 통(通)한다

42 스페셜 테마 2

네가 있기에 '우리'가 있다

46 스페셜 테마 3

우리 시대 특급 리더십

50 인터뷰

영화감독 이경미

54 위 아 더 넥센

창녕공장 품질검사파트

58 넥센인 톡

당신의 패션지수는 몇 점?

60 넥센인 생활백서

사회인을 위한 패션 제안

64 패밀리 데이

(양산)PCR파트 나상출 조장 부부의 나들이

68 대 : 담하다

자취 4인방의 나 혼자 산다



NEXEN TOMORROW

74 포커스

겨울용 타이어 Winguard ice SUV

76 스포츠 마케팅

동계 스포츠 속 넥센타이어

80 넥센 트래블

경북 포항 구룡포 과메기 맛 투어

86 넥센 파인더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입문과정

90 나눔 스토리

이웃愛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습니다

94 넥센 살롱

영화에서 배우는 궁극의 팀워크 BEST 3

98 thanks

사우들의 사보 참여 후기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7년 신년호 통권 66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17년 1월 9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 담당 문화혁신팀 (02-3480-0369)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이시라, 최주용, 문경야 사진 (주)사진과책 교정 이은실 프로세스 (주)하이테크컴 (02-741-3377) 인쇄 (주)두경프린텍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넥센타이어의 어제와 오늘

지난날 우리가 거처온 시간을 회상하면서 되새겨본
주목할 만한 넥센타이어의 국내 인쇄 광고 변천사.



2000년
겨울을 제압한다! 원가드 스토리
눈길 위에서도 안전한 원가드 타이어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2005년
바른 길로만 가겠습니다
고객에게 전하는 감사인사와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2006년
365일 기후변화에 탁월하다! CP641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물 이미지.
최상의 배수성과 핸들링을 표현했다.



2000년
21세기는 넥센으로 달린다!
넥스트 센트리 타이어
Y2K가 지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했다.
타이어 선택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Perfect Balance RADIAL N2000
우아하고 유려한 인체의 실루엣을 전면
내세운,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인쇄 광고.



2005년
내일의 자동차는 변해도 내일의 타이어는 넥센
유럽 자동차 브랜드에서 활약하고 있던 자동차
디자이너를 모델로 내세웠다.



2007년
60여 년의 기술과 품질! 넥센타이어의
대한민국 타이어의 역사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하는 넥센타이어의
기술과 품질을 전면
내세웠다.



2007년
당신을 위한 특별한 감성,
당신을 지키는 미래의 기술
N7000
럭셔리 세단, 수입차 증가에
맞춰 고급 타이어에 대한
수요를 겨냥한 N7000을
출시했다.



2011년
친환경 타이어 N'Blue eco 출시
친환경 제품 개발 트렌드와 고유가 시대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개발된 친환경 타이어.



2013년
지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부드러운
비행 N'FERA AU5
프리미엄 타이어의 완벽한
진화를 모토로 다양한 강점을
가진 N'FERA AU5를 선보였다.



2014년
한국시리즈 준우승
2010년부터 메인 스폰서십 계약을 맺은 '넥센
히어로즈'가 창단 첫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2010년
GCSI 글로벌 고객만족도 1위 달성
일본능률협회컨설팅 선정 2010 GCSI
글로벌 고객만족도 타이어 부문 1위를
기념하는 광고.



2014년
세계 최초 넥센타이어 디자인 어워드
그랜드 슬램
iF 디자인, 레드닷, 굿 디자인, IDEA
등 4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했다는
광고를 집행했다.



2016년
지금부터는 타이어 렌탈 시대
업계 최초로 선보인 타이어 렌탈 서비스
'넥스트 레벨'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혜택을
강조했다.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1사 1촌

글 김명권(OE기술팀) 사진 김민영(문화혁신팀)



“요즘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

넥센타이어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작년에 이어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노구소마을로 1사 1촌 봉사활동에 나섰다. ‘1사 1촌’이란 농촌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봉사 및 교류를 실시하는 넥센타이어 CSR 활동 중 하나. 노구소마을과는 2011년 1사 1촌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및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봉사가 진행된 지난해 10월 24일 아침, 일찌감치 집결지에 도착한 넥센타이어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파란색 조끼를 나눠 입고, 1사 1촌 활동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평소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던 봉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말이다.

2시간을 이동한 버스가 노구소마을로 들어서자, 마을 주민들이 봉사단원들을 반갑게 맞았다. 매년 참석하는 사원들은 반가움과 추억이 교차하는 듯했다.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1사 1촌 봉사활동’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벼 베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씩 챙겨왔다. 노랗게 익은 벼 앞에서 마을 이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본격적인 벼 베기 활동이 시작됐다.

낫을 이용해 일일이 손으로 벼를 베어 줄기를 한 묶음씩 묶고 전달하기를 한나절. 뉘처럼 푹푹 빠지는 논에서 간신히 중심을 잡으며 벼를 나르는 동안 옷은 더러워졌고, 함께한 직원들의 얼굴에는 구슬땀이 흘렀다. 하지만 멀리서 찾아와 고생이 많이라며 고마워하시는 농촌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보람과 즐거움을 느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농촌과의 교류 활동에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참여해 활기찬 농촌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마라톤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동

글/사진 안정우(OE기술팀)



새해가 되면 언제나 새로운 기대감으로 마음이 들뜬다. 평소에 불가능했던 일도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상승한다. 가장 대표적인 기대감이 바로 운동에 대한 열망. 하지만 ‘새해에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도 되찾고 다이어트도 해야지’ 하는 계획은 뒤로 밀리고 만다. 2017년 역시 예견된 미래에 실망한 넥센타이어 직원이라면, 서울사무소 마라톤 동호회를 주목하자.

2011년 봄, 회식과 야근으로 불어난 배로 운동의 필요성을 느낄 때쯤 마라톤에 도전한 경험이 있다. 첫 출전에서 상품이 아닌 허리통증을 얻었지만 끝인 지점을 통과하며 느끼는 희열을 통해 마라톤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이후 30여 명의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모여 마라톤 동호회를 결성했다. 고되고 힘든 운동이지만,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땀 흘리며 달린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진 ‘러닝’ 열풍에 마라톤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것도 동호회의 성장과 함께 한다.

서울사무소 마라톤 동호회는 지난해 10월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에 출전했다. 여성들의 유방 건강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가비 전액이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돼 저소득층 유방암 환우들의 수술·치료비 지원에 쓰이는 뜻깊은 행사였기 때문이다. 특히 함께 참가한 OE기술팀 김무열 팀장은 과거, 부인이 유방암 투병 경험이 있어 유방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에서 직원들은 10km를 뛰었다. 결코 짧지 않은 거리였지만, 1시간 전후로 꾸준히 뛰면서 인내하고 끝인 지점을 통과할 때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을 정도였다.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하고, 회사 동료끼리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마라톤 동호회는 앞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마라톤 경기에 참석하면서 각자의 기록을 단축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2017년 새해, 마라톤의 매력이 궁금하다면 서울사무소 마라톤 동호회를 찾아 보는 것은 어떨까?⑩



제53회 무역의 날 8억불 수출탑 수상

글 김희진(문화혁신팀) 사진 이대웅



넥센타이어가 지난해 12월 '제53회 무역의 날'을 맞아 8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뛰어라 한국무역!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무역유공자, 정부 및 유관기관장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선전한 무역업계를 격려하고,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무역인의 자세와 각오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강호찬 대표이사는 산업포장을, 생산부문의 안형민 직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넥센타이어는 탄탄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력과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상승,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공급 확대, 그리고 초고성능 타이어(UHPT) 등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 증가세에 힘입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8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1995년 1억불 수출탑 수상 이후 2005년 2억불, 2006년 3억불, 2007년 4억불, 2010년 5억불, 2012년 7억불 수출탑을 거쳐 올해 8억불 수출탑을 달성, 실적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세계 경기의 장기 침체에 소비시장 위축과 업체 간 경쟁 심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별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넥센타이어는 세계 최대 타이어 소비 지역인 유럽과 북미 지역 등 전 세계 약 130개 국에 타이어를 수출함으로써 국내 수출산업의 변화에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UHP Tire(Ultra-High Performance Tire) 매출 비중은 현재 약 40% 수준을 기록하면서 실적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글로벌 UHP Tire 시장에서 넥센타이어의 점유율은 2015년 기준 전 세계 타이어 회사 가운데 9위(국내 1위)에 올라 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영업기획담당 김종선 상무는 “앞으로도 넥센타이어는 8억불을 넘어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양산공장 생산팀 UHP파트 안형민 직장은 “큰 상을 받게 돼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라며 시상식에 함께 참석한 가족과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⑮



영화관 内 브랜드 홍보관 운영

영화 보는 날, 넥센타이어 보는 날

글/사진 마경림



넥센타이어가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사 포르쉐 카이엔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과 동계스포츠 국제대회 4종목 후원을 기념한 ‘넥센타이어 씨네마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넥센타이어를 이용하거나 관심 있게 지켜봤던 소비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려는 시도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11월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exentire.korea)에 게재된 퀴즈를 맞힌 당첨자와 히어로즈 야구단, 넥센 스피드레이싱 관계자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영화 <판도라>를 관람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영화가 상영된 서울 용산 CGV 7관은 넥센타이어 브랜드관으로,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에게 넥센타이어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한 공간이다. 상영관 내외부 곳곳에 넥센타이어 홍보 사진을 전면 배치하고 신차 타이어, 넥스트레벨 조형물을 설치해 브랜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있다.

CGV 극장에 마련된 넥센타이어 홍보관 이벤트 부스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티켓과 쿠폰을 배포함은 물론, 넥센타이어 캐릭터 넥싱이와 넥센 히어로즈 턱돌이 캐릭터 인형과 함께하는 SNS 인증샷 이벤트도 펼쳤다. 더불어 넥스트 레벨 안내물 배포, 넥센타이어 교환권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영화 이벤트 당첨자들은 관람에 앞서 현장에서 귀여운 캐릭터들과 사진을 찍고 부스를 돌아보며 넥센타이어의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독일 스포츠카 포르쉐에 공급되고 있는 신차용 타이어 엔페라 RU1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상영한 영화 <판도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에 이어 한반도를 위협하는 원전 사고까지, 예고 없이 찾아온 대한민국 초유의 재난 속에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사투를 그린 작품이다.

넥센타이어 브랜드관은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용산 CGV에서 관객들을 맞이하는 중이며, 이외에도 서울 및 수도권 11개관 51개 스크린에서 넥스트레벨 광고가 선보이고 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뿐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등 국내외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소비자들과 소통해온 넥센타이어는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⑩

NEWS

‘엔블루 HD Plus’, 일본 굿 디자인어워드 본상 수상



넥센타이어의 ‘엔블루 HD Plus’ 제품이 지난해 9월 ‘2016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G 마크)’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JIDPO)가 주최하는 ‘굿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레드닷’과 ‘iF’, 미국의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4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힌다. 제품의 디자인, 사용성,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수상작에는 ‘G 마크’가 부여된다.

이번 디자인 어워드에서 ‘엔블루 HD Plus’는 나

비의 우아한 선과 역동적인 날갯짓에서 영감을 얻은 친환경 디자인과 세련되고 화려한 유리피언 스타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가 실시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강력 추천(Very Recommendable)’을 받았고, <아체에 렌크라트> 테스트에서도 ‘최우수 타이어(Test Winner)’에 선정되는 등 혁신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능까지 자랑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방암 인식 향상 ‘핑크리본 캠페인’ 6년 연속 후원



넥센타이어가 지난해 10월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의 달을 맞이해 ‘2016 핑크리본 캠페인’에 6년 연속 공식 후원사로 참가했다.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예방을 위해 매년 10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 공익 캠페인이다. 2016년 10월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했으며, 캠페인의 일환으로 ‘투게더 핑크리본 콘서트(Together Pink Ribbon Concert)’도 열렸다. 넥센타이어는 현장에 넥센 핑크 라운지를 마련하고 디지털 캐리커처 및 캘리그라피 아트 엽서 만들기 이벤트와 연계해

모금 행사도 진행했으며, 모금액 전액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했다. 경품 행사도 따로 마련했다. 디지털 캐리커처 및 캘리그라피 아트 엽서를 해시태그를 걸어 SNS에 올린 선착순 300명과, 넥센타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퀴즈에 참여해 정답을 맞힌 100명을 추첨해 ‘넥센 룸 스프레이’를 경품으로 증정했다.

NEWS

포르쉐 카이엔 공급 기념 고객 이벤트 및 윈터 명품보증제도 실시

넥센타이어가 포르쉐 카이엔 공급을 기념해 렌탈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 이벤트 및 윈터 명품보증제도를 실시했다.

고객 이벤트는 윈터 타이어 제품인 윈가드 스포츠, 윈가드 아이스, 윈가드 아이스 SUV, 윈가드 SUV와 프리미엄 제품인 엔페라 AU5, 엔페라 RU5, 엔프리즈 AH8 중 4개의 타이어 렌탈 시 ‘바자르(BAZAAR) 쿨사이즈 고급 이불’을 고객에게 증정했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행사 참여 지점은 넥스트레벨 홈페이지(www.tirerental.co.kr)에 공지됐다.

윈터 명품보증제도는 넥센타이어의 겨울용 대표 제품인 윈가드 스포츠, 윈가드 아이스, 윈가드 아이스 SUV, 윈가드 SUV 중 4개 구매 시 핑크 등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사용 불가품을 1회에 한해 일대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다.

전국 타이어테크와 타이어뱅크 등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구매 시 보증서를 증명하며, 명품보증 서비스는 6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16’ 후원

넥센타이어가 양궁의 대중화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잠실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된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16’을 공식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국내 스포츠 활성화 및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량이 세계 정상급임에도 평소 비인기 종목에 머물렀던 양궁의 대중화에 일조한다는 취지에서 결정했다. 넥센타이어는 경기장 전광판과 대회 제작물에 영상 광고와 기업 로고를 노출하고, 대회장에 별도의 프로모션 부스를 운영하는 등 넥센타이어 브랜드와 타이어 렌탈 서비스인 넥스트 레벨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현장 프로모션 부스에서는 양궁 다트 게임 및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가 진행됐다.



FCA 최고 품질 우수 업체 선정



넥센타이어가 지난해 10월, FCA(피아트-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사로부터 최고 품질 우수 업체로 선정됐다. '2016 FCA APAC QUALITAS'는 FCA가 매년 글로벌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과 워런티, 기술력 등을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번 어워드 Quality - APAC Export 부문에서 타이어 업계에서는 넥센타이어가 유일하게 선정돼 브랜드 가치를 올리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재 넥센타이어는 FCA의 대표 중대형 픽업트럭 '램 3500'과 상업용 밴 '램 프로마스터'를 비롯해, 미니 밴의 원조라 불리는 '타운&컨트리'의 후속 모델 '퍼시 피카' 차량에도 올해부터 타이어를 공급하는 등 북미 시장에서 OE(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3월 미국 JD파워가 발표한 신차용 타이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승용차 부문 4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메이저 리그 3개 구단과의 파트너십 체결뿐만 아니라 포물러 드리프트 경기 후원 등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판매 확대에 힘쓰고 있다.

'스피드레이싱 엔페라컵' 최종 라운드 영암 서킷에서 개최



넥센타이어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2016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엔페라컵' 6라운드가 지난해 10월 30일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됐다. 4월 개막전을 시작으로 1년간 진행된 '2016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엔페라컵' 6라운드에서는 10개 클래스 200여 대의 차량이 출전해 마지막까지 불꽃 튀는 순위 경쟁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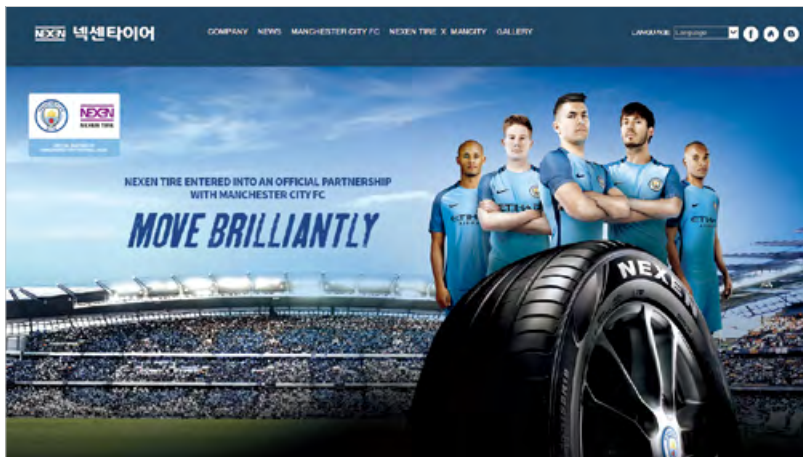
경기장 내에는 경기 관람 외에도 관람객을 대상으로 많은 이벤트가 준비돼 있었다.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킷 체험 주행과 택시 체험 이벤트에는 6개 동호회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자동차학과 학생들의 레이싱 체험과 버스 투어, 그리드워크, 레이싱 모델 포토타임, 피트스톱 챌린지(타이어교체 체험), 세발자전거 레이스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본인의 차량으로 400m 직선 코스를 최고 속도로 질주하는 '엔페라 드래그 타임 워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짜릿한 스피드를 체험할 수 있었다. 차량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했고, 대회 홈페이지 및 현장에서 접수받았다.

넥센 스피드레이싱 최종 라운드는 경기 당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으며 11월 12일 토요일 SBS스포츠 채널에서도 녹화 중계됐다.

맨체스터시티FC 파트너십 마이크로사이트 오픈



넥센타이어가 지난해 11월 9일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FC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마이크로사이트(nexen-mancity.com/kr)를 오픈했다.

마이크로사이트에서

는 회사와 구단에 대한 소개 및 파트너십 활동, 그리고 시즌 성적 현황과 선수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첩 등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맨체스터시티FC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한 마이크로사이트 오픈을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고객들에게 회사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2015~16 시즌부터 유럽의 명문 축구 구단 맨체스터시티FC의 공식 후원사로서 각종 이벤트와 경기장 내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홈구장인 에티하드 스타디움 내에 넥센타이어 전용 호스피탈리티 박스를 설치해 주요 거래선 초청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넥스트 레벨 출시 1주년 기념 홈쇼핑 첫 방송

넥센타이어가 업계 최초로 선보인 타이어 렌탈 서비스 ‘넥스트 레벨’의 출시 1주년을 기념해 홈쇼핑에 진출했다. 2016년 11월 GS홈쇼핑을 통해 진행된 방송에서는 상담완료 고객 전원에게 3000원 모바일 주유권을 증정했다. 또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총 200만 원과 LG 디오스 김치냉장고를 증정하고 계약고객에게는 신세계 3만 원 상품권을 추가 지급했다.

합리적인 소비와 편리한 타이어 관리라는 고객 관점에서 시작한 넥스트 레벨은 제휴카드 서비스를 통해 가격 부담도 낮췄다. 또한 사용기간 중 마모나 파손이 일어날 경우 고객의 안전운전을 위해 2개를 추가 증정하며, 6개월마다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통해 공기압 점검, 보충, 항균 연막 탈취, 워셔액 점검 및 보충 등 차량 10대 항목 안전점검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넥센타이어는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전국 1700여 개의 렌탈 서비스 전문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렌탈 가입 고객은 방문 서비스와 별도로 전국 렌탈 전문점 어디에서든 차량 10대 항목 점검 서비스와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해 위치교환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피렐리 브라질과 전략적 업무제휴 체결

넥센타이어가 브라질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피렐리 브라질(Pirelli Brazil)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지난해 12월 5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넥센타이어 해외영업담당 오재경 이사와 피렐리 브라질 클라우디오(Claudio)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피렐리 브라질 본사에서 진행됐다.



넥센타이어는 승용차, SUV 및 밴 등을 포함한 ‘NEXEN’ 브랜드 전 제품을 피렐리 브라질에 독점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브라질 시장 내 인지도 제고 및 판매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렐리 브라질 또한 브라질 공장에서 생산되는 피렐리 제품 외에 해외 수입으로 넥센 제품을 브라질 전국 2000여 개 소매점에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법인의 매출 확대도 꾀한다는 전략이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제휴는 브라질 시장에 넥센타이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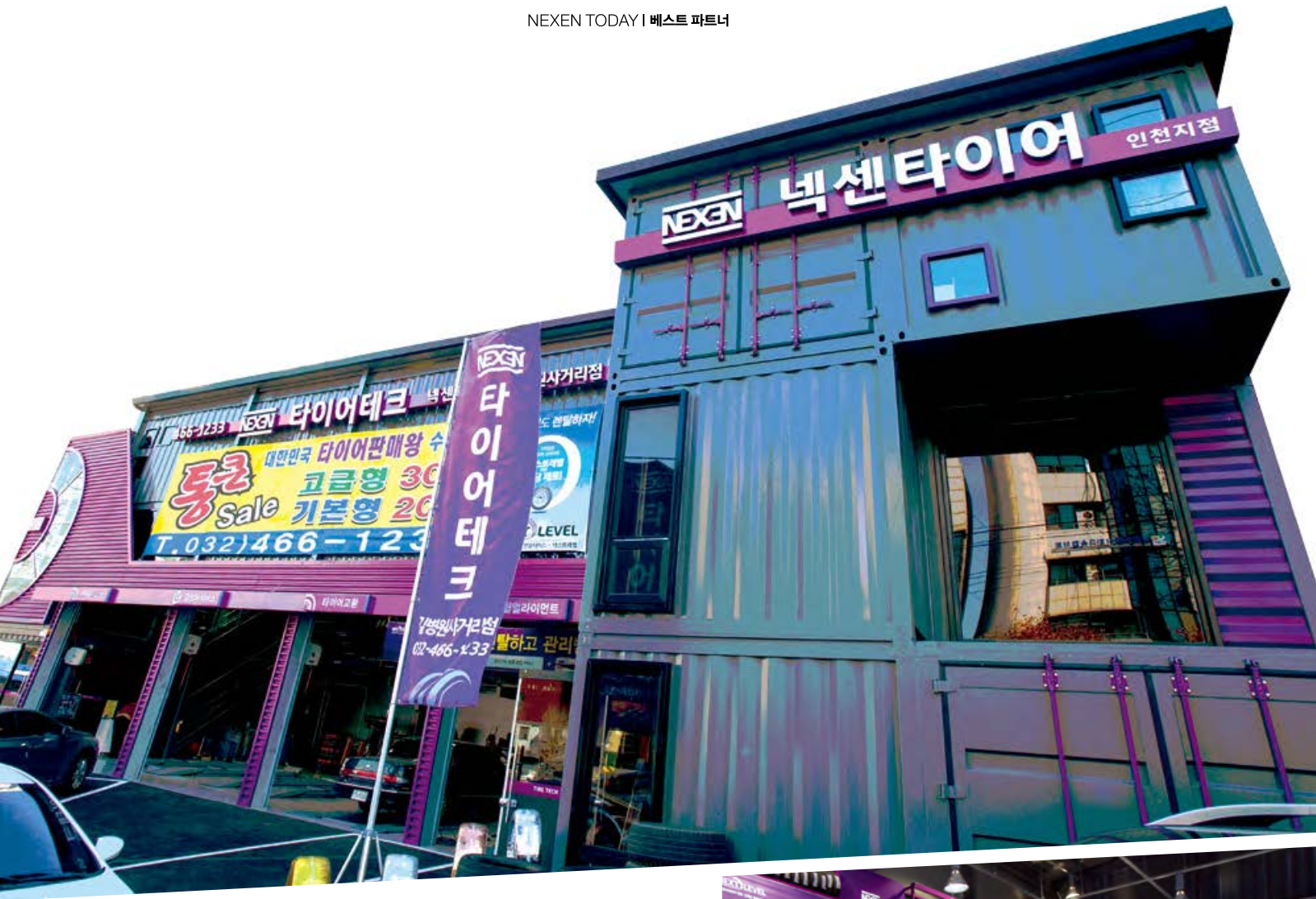
‘2016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2016년 1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9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시상식에서 자동차 · 항공 · 부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은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소셜미디어, 인터넷 서비스, 온 · 오프라인 소통 활동, 각종 커뮤니티 및 소통 효과를 종합 평가해 고객과 원활한 소통에 탁월한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1, 200개 기업과 8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소통 만족 지수를 평가했으며, 넥센타이어는 콘텐츠, 이벤트 및 소통 마케팅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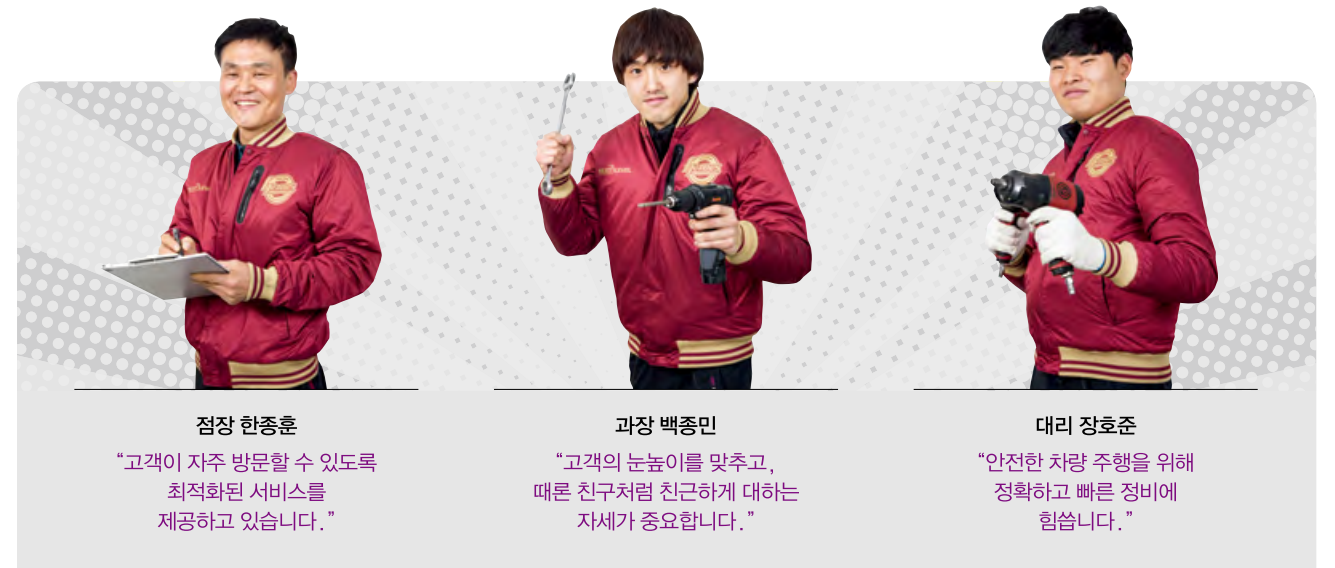
넥센타이어는 국내외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고객과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맨체스터시티 FC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활용해 마이크로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력, 친절함을 고루 갖춘 타이어테크 길병원사거리점

큰 도로변에 위치한 눈에 띄는 컨테이너 건물.
도시 속 세련된 외관이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오픈한 지 1년, 3명의 직원이 환상의 호흡을 보이는
타이어테크 길병원사거리점을 찾았다.

글 김지혜 사진 이맹호



점장 한중훈
“고객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장 백종민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고,
때론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대리 장호준
“안전한 차량 주행을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비에
힘씁니다.”

한중훈 점장 : 안녕하세요. 타이어테크 길병원사거리점을 운영하는 한중훈 점장입니다. 저희 타이어테크 길병원사거리점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골 고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종민 과장 : 퇴근 전에 정비소와 사무실, 타이어 재고실까지 깨끗이 청소합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정리정돈을 말끔히 하고 본격적으로 고객 맞을 준비를 하죠.

장호준 대리 : 매일 오전 8시 30분에 하는 조회는 하루 중 빼놓을 수 없는 일과입니다. 업무적인 부분, 제품과 서비스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의 할 일을 점검합니다.





친절함, 꼼꼼함, 서비스,
모든 게 만족스러워!
꼭 한번 방문해봐야겠죠?



장호준 대리 : 타이어 판매는 철저한 재고 관리
부터 시작됩니다. 직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
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
일자에 따른 선입선출 방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백종민 과장 : 저희 매장은 타이어 점검 서비스
뿐 아니라 방문 차량의 워셔액, 브레이크 패드,
엔진오일, 배터리 등 소모품 교체 같은 경정비
도 하고 있습니다.

장호준 대리 : 타이어 제품이 우수하면 자신 있
게 판매할 수 있죠. 특히 장거리를 운전하는 고
객에게 안전하고 승차감 좋은 넥센타이어 '엔
페라' 제품이 인기입니다.

한중훈 점장 : 넥센타이어로 교체한 고객이 저
에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사고라도 났나 걱정
했는데 좋은 제품을 추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안전한 운행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서 뿌듯합니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2
문의 032-466-1233

백종민 과장 : 저희 매장은 무료로 타이어
휠 세척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휠은 세차
해도 잘 안 닦이는 부분이지요. 휠만 닦아도
새 차 같은 기분이 들어 고객들이 굉장히
만족합니다.

장호준 대리 : 더 많은 고객을 만나기 위해
할인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큰 홍보 효과를 얻는 중입니다. 방
문 고객에게 차량 방향제를 증정하는 이
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한중훈 점장 : 타 매장과 차별화된 점을 들
자면 저희 매장은 간단한 서비스라도 고
객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친절과 확실한 관
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한마음 등반 대회

관악산을 정복하다

서울사무소가 지난해 10월 14일 관악산 등반 대회를 치렀다. 2년 만에 돌아온 등반 대회에 참가한 230여 명의 서울사무소 임직원들은 오늘을 통해 동료애라는 훈훈함과 따스함을 느꼈다. 생생한 그날의 기억 속으로 시간을 되돌려보자.

글 조병례 사진 이용관





오늘의 힐링 코스

이른 아침 과천 향교 앞에 집결한 서울사무소 임직원들은 인원 파악에 이어 이번 등반의 필수품인 생수와 수건, 간식 등을 지급받았다. 출발을 기다리며 아침 인사를 나누고 설레는 얼굴을 감추지 않았다. 등반에 앞서 황동진 부사장은 전 참가자가 사고 없이 무사히 완주할 것을 당부하고 격려했다.

이번 산행은 경영전략본부, 글로벌영업본부, T&S영업본부, 윤리경영실, ICT센터까지 순서대로 출발하기로 했다. 짧은 준비운동 시간에 분주한 모양새로 몸을 풀어주던 벡센인들은 어느새 비장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출발 직전 동그랗게 모여선 벡센인들은 각자 팀 이름을 힘껏 외치며 각오를 다졌다.

우렁찬 외침에 임직원들은 웃음을 터트리며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내뿜었다.

열심히 걷다가 삼삼오오 모여 숨을 돌리면서 간식을 먹기도 하고, 홀연 나타나 등산객들을 바라보는 고양이에게 시선을 빼앗기기도 했다. 임직원들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관악산 풍경을 감상하고 사무실에서 못 다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발걸음에 속도가 붙고 어느새 목적지인 연주암에 도착한 벡센인들.

차가운 아이스크림으로 몸의 열기를 식히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증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오랜만에 즐기는 사무실 바깥 풍경에 다들 기분 좋은 표정이었다. “오랜만의 등산이라 걱정했는데 나와보니 생각보다 좋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을 보니, 도심 공기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힐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벡센을 위하여

짧은 휴식시간을 가진 뒤 모든 임직원이 모여 현수막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며 기세등등하게 단체 사진을 찍었다. 하산을 시작한 벡센인들은 왕복 약 4시간의 여정에도 지친 기색 없이 산을 내려와 전원이 사고 없이 산행을 마쳤다.

출발했던 장소에 마련된 점심식사 자리에서 한결 흥이 오른 벡센인들 사이로 바쁘게 술잔이 오갔다. 한자리에 모여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체력을 보충하고 친목을 다졌다.

황동진 부사장과 해외영업담당 오재경 이사의 건배 제의 역시 오늘 모인 임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 ‘변사또(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만나자)’에 이은 건배사로 최근 좋은 성과를 거둔 ‘OE(신차용 타이어)’와 ‘벡센을 위하여’를 외치며 지금까지 고생한 동료들을 서로 격려했다. 특히 황동진 부사장은 후배를 다독이며 함께 등반해 동료애를 보여준 OE기술팀의 유은상 과장과 최연진 사원을 언급해 박수를 이끌어내는 훈훈함을 보였다. 또한 한국지역담당 소속 신입사원인 주호진 · 황관홍 · 김영작 · 김기남 사우가 무대에 나서 선배들에게 인사와 함께 큰절을 올려 감동을 선사했다.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라는 구호처럼 이번 등반 대회에서 벡센인들이 보여준 활기와 에너지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⑭



우리 집 사랑둥이를 소개합니다



챗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는 반려동물.
말은 하지 못해도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넥센인의 친구이자 가족을 소개한다.

정리 김지혜



샤샤

수원지점 우승희

쉬는 날엔 이렇게 장난감을 물어와 놀아달라고 뽀뽀 쳐다봐요. 그 눈빛에 홀려 항상 잠을 포기하고 놀아줍니다. 쉽지 않은 견종이지만 이 아이 덕분에 웃는 일이 많습니다. 보더콜리의 매력이죠~! 반려견은 사랑입니다.

송이

OE개발4팀 조성운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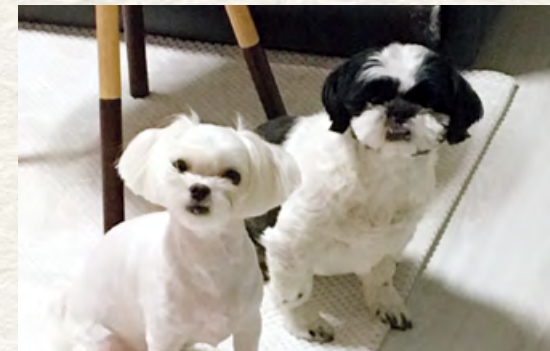
송이는 제가 중학생일 때, 생후 2개월부터 저희 가족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사랑스럽고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먹을 것 앞에선 유난히 말뚱말뚱하며 장난치고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지만 여전히 늘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송이야~.



쥬

상품기획팀 박기석 팀장

우리 집 막내 깔금돌이이자 털복숭이 포메라니안 '쥬'를 소개합니다. 5년 전 형제들과 떨어져 우리 집에 왔지만 다행히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마스코트로서 온 가족의 귀여움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쥬'가 좋아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가족과 사람뿐이죠.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가족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쥬야 사랑해!



두부 & 만두

상품기획팀 김인혁 대리

우리 집 귀염둥이 두부와 만두♡ 둘이 그만 좀 싸워라.



럭쉬

(양산)재고운영파트 김동철

우리 가족의 영원한 반려자 '럭쉬'. 행운을 가져다주는 럭키였는데 남자아이 이름 같다는 생각에 아이들과 상의 끝에 럭쉬로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강아지 세 마리

공정연구팀 탁세원 연구원

저희 집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비록 직장 근처에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고향인 광주에 가면 차 소리를 듣고 먼저 대문 앞까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정겹게 반겨준답니다. 저희 아버지도 반려동물과 같이 강아지 복장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다시 봐도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함께 찍은 털복숭이 강아지들이 지난 여름에는 털갈이 후 의젓하게 변했답니다.





티거 & 레오

특성연구팀 김기현 주임연구원

5년 동안 같이 산 티거, 레오입니다. 엄청 시크해서 간식 줄 때 외에는 주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지만요. 요즘에 2살 된 아들이랑 놀아주면서 밥값 좀 하는 중입니다.

레오

자금팀 최경은

어느날 제 품에 안겨 들어온 하나의 생명. 강아지만큼 애교 많고 귀여워서 '개냥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쁜 우리 레오를 소개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신발장에서 눈이 다 풀린 채로 반겨주는 귀염둥이예요. 잘 때도 제 옆에 기대어 자는 6개월 된 남자 아기랍니다.



금이

기업문화팀 이수진

저희 집에는 네 마리의 코카 스파니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년째 키우고 있는 저희 집 마스코트 금이를 소개합니다. 7년을 키우다 보니 금이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아나 봐요. 항상 침대에서 이렇게 잔답니다. 코카 네 마리를 키우느라 집은 항상 개판이지만 언제나 든든하게 저희 집을 지켜주는 금이와 아이들이 있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해피 & 뽕쥬

문화혁신팀 길아람 과장

저희 집 사랑이들입니다. 첫째 코카 스파니엘 '해피'는 똑똑하고 의젓한 순둥이고요. 둘째 포메라니안 '뽕쥬'는 사방팔방 날아다니는 활발한 여우랍니다. 초반엔 티격태격하다가 지금은 둘도 없는 자매 같아요.

달님이

넥스트채널팀 김영운 팀장

지금 대학에 다니는 둘째 딸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입양한 달님이 이제 14살, 개 나이로는 70살이 넘어서 우리 집 어른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늘었지만 그래도 아직 먹을 것만 보면 펄펄 날아다닙니다.



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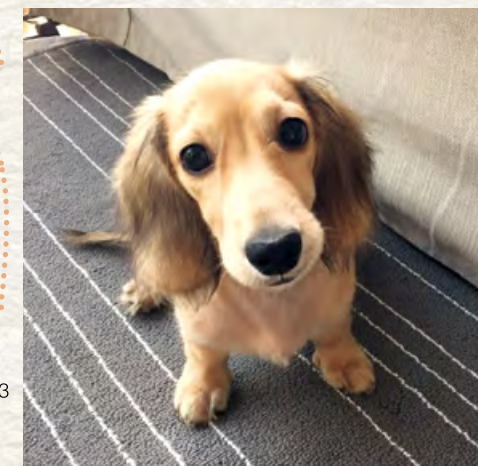
NEP지원담당 정영훈

2010년 늦둥이로 입양된 저희 집 막내 수컷 시추 '멍개'입니다. 가끔 제가 '멍청한 개'의 줄임말 아니냐고 놀리긴 하지만 수의사이자 견주인 친형은 '멍멍개'라서 멍개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사실 꽤 똑똑한 편이어서 절대 물거나 짜증 내지 않고, 제가 본 강아지 중에서 가장 착하고 순한 녀석입니다.

자몽

상품기획팀 정영교

우리 집 귀염둥이 자몽(自夢)! 퇴근 후 신나게 놀아주다가 곤히 제 옆에서 잠을 청합니다. 아침 출근을 준비할 때 하도 애교를 피워서 떼놓고 나오기 힘들어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칭찬합시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되며, 칭찬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난과 불만의 에너지를 더욱 생산적으로 전환하는 힘, '칭찬'. 넥센인들이 소중한 당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정리 김수진



넥센타이어 공식 트레이너

영업기획팀

김용하 대리님께

“2017년 건강하고 활동적인 새해를 계획하고 있는 ‘몸짱 미생’들을 구원해줄 멋진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영업기획팀 김용하 대리입니다.

저 역시 탄탄한 몸과 건강을 위해 용하 대리님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가끔 넥센타이어 직원인지, 헬스장 트레이너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긴 하지만요. 하하. 덕분에 저… 곧 김종국 못지않은 몸짱 될 것 같아요.

김용하 대리님, 그동안 저 운동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 해외영업지원팀 윤기훈 사원 드림



온화한 리더십의 소유자

해외영업담당 오재경 이사님께

“제가 입사한 2010년, 미국에서 출장 오신 오재경 부장님(현재 이사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부장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기존 직원들과 친해지는 데 어려움을 겪던 그 시절, 오 이사님의 파스함에 넥센타이어가 참 훈훈한 회사라는 걸 느끼게 됐지요. 심성 좋으신 이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맡아온 상품기획 · 마케팅 · 전략기획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 고충에도 기꺼이 멘토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오재경 이사님, 앞으로도 저의 멘토로 또 많은 넥센인의 멘토로 남아주세요.”

— 성과혁신팀 황익진 팀장 드림

새로운 시작 오늘의 당신

창녕공장 뒤로 여명이 밝아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쉬며
출근길, 내 안의 열정을 되새깁니다.

TEAMWORK

팀워크

최고의 타이어를 위한 최고의 팀워크.
세계의 벽을 뛰어넘는 힘의 원동력은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서 나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극복하면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갑니다.

실패를 거듭해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동료들을 보며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는 서로의 에너지입니다.



Teamwork

우리는 통(通)한다

팀워크가 가지는 위대한 힘

글 윤정용(윤정용연구소 대표)



“우리 성경이 좀 부탁한다! 빨리 가!”
영화 <부산행>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꼽는다면 바로 이 장면이다.
상화(마동석)는 몰려오는 좀비들을
막으며 석우(공유)에게 임신한 아내를
부탁한다며 외친다. 상화와 석우는 영화
초반부터 서로 부딪쳤고 위태해 보였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둘만의 끈끈한 동지애가
생겼다. 이번엔 직장을 둘러보자.
‘내 동료와 최고의 날이 언제였을까?’

직장 생활을 돌아보니 기억에 남는 것은 최고의 성과를 냈던 일이 아니었다. 대표이사
표창을 받은 일도, 남보다 높은 고과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나에게 직장 생활
최고의 날은 매일 야근을 하며 겨우 오픈 일정에 맞췄던 프로젝트였다. 비록 저녁을
분식으로 대충 때우고, 12월 31일 밤을 팀원들과 보냈지만 말이다. 이 프로젝트에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움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서로 힘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경험. 아직도 당시 어떻게 고생하고 힘을
합쳤는지 기억이 생생하다. <부산행>에서 상화와 석우도 목숨을 걸고 가족을 구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을 공유하며 동지애가 생긴 것 아닐까?

미국의 리더십 연구가 사이먼 사이넥은 힘든 시기에 서로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면

우리 신체는 ‘옥시토신’을 분비한다고 밝혔다. 옥시토신은
이타적 화학물질로서 친한 친구들 혹은 신뢰하는 동료들
사이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같은 목표를 갖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팀원들이 힘들어하는 동료를 도와주어야
한다. 리더라면 장수가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며
보살피듯,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며 격려하고
지켜줘야 한다. 조직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리더이며, 성공을 이끄는 자 역시 리더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리더와 팀원들이 서로 도우며 힘든 시기를 이겨낼 때 강력한
동지애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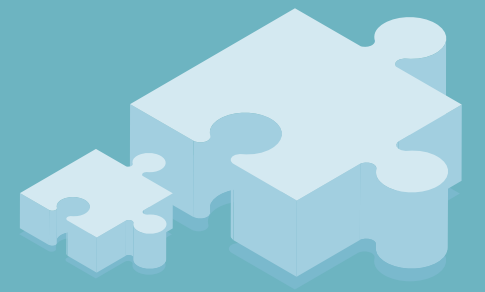
2015~16년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기적 같은 우승을 거둔
레스터시티 FC. 레스터시티 주전 선수 11명의 연봉을 다
합친 금액은 420억 원 정도로, 최고의 축구 선수라 불리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연봉 13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심지어 레스터시티의 우승 확률은 0.02%였고, 전문가들은
강등 후보 중 하나로 꼽았다. 강등될 수 있다는 위협이
레스터시티를 하나로 뭉치게 했다. 거기에 레스터시티의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은 여러 클럽에서 성공과 실패
경험을 쌓았고, 3부 리그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킨 이력도
있다. 그는 각 선수들의 강점을 잘 끌어내고 팀을 하나로
뭉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레스터시티의 우승에는 어떤
선수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모두 활약했고 하나로
똘똘 뭉쳤다. 강등권 후보에서 벗어나 무조건 챔피언이
되겠다는 팀의 정신력은 레스터시티의 기적 같은 우승 공식이
됐다. 레스터시티의 골키퍼 카스퍼 슈마이켈은 힘들었던
시절과 좋았던 시절을 함께하며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도왔고, 이것이 레스터시티의 팀워크이자 경기력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레스터시티 선수들은 서로를 신뢰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팀워크를 만들었다. 신뢰를 쌓아야 같은 목표를 향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갈 수 있다. 신뢰를 쌓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관찰이다. 영국 드라마 <셜록>에서 셜록 홈스와
왓슨은 룸메이트가 되어 한방을 쓴다. 소시오패스인 셜록,
마음에 상처가 있는 왓슨. 둘은 얼핏 보기에도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사이다. 셜록과 왓슨은 서로 경계했지만 함께 지내면서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고, 무슨 강점이 있으며,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적극적으로 관찰하면서 파악한다. 그리고
살인사건을 계기로 함께 사건을 함께 해결하며 최고의 콤비가
되었다. 셜록과 왓슨처럼 함께 일하는 팀원이라면 서로의
이름부터 이력, 장점, 단점, 업무 스타일 등을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파악해야 한다. 팀원의 스타일에 맞춰 일하려고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때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잡담이다. 사이토 다카시 메이지대 교수는 <잡담이
능력이다>에서 ‘잡담은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분위기를 공유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

잡담에서 관계가 시작된다. 일반적인 대화를 멈추고 팀원
간에 편안한 잡담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자. 드라마, 스포츠,
영화와 같은 잡담도 좋지만, 자신을 이야기하는 잡담을
권한다. 잡담으로 팀원 간의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매일 아침 모닝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잡담을
즐기는 곳모닝 타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함께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내부적으로 신뢰와 협력을 쌓아나가면 팀원들은
동지애로 똘똘 뭉칠 것이다. 그리고 팀은 더 강해질 것이다.⑩





네가 있기에 ‘우리’가 있다

‘혼자만 잘 살든 무슨 재민겨’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우익 작가의 책 제목인 이 문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듯하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폭넓은 감정을 느끼고 점차 발전해나간다.
서로가 있기에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넥센인들. OE영업담당의 연말 워크숍과 넥센타이어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회인 야구단 로디안즈의 소식은 그래서 더 특별하다. 회사 생활도,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들의 팀워크 이야기를 들어보자.



01. 올해도 도전! OE 파이팅!

글/사진 김상훈(OE영업기획)

일할 때는 ‘열일’ 하고 놀 때는 제대로 노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다. 지난해 12월 2일 넥센타이어 OE영업담당 35명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로 ‘2017년 경영계획 달성을 위한 워크숍’을 떠났다. 박근혜 전무를 필두로 한 참가자들은 2016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의 목표 수립과 달성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모였다. 오랜만에 서울사무소를 벗어난 직원들은 강원도의 맑은 공기와 파란 하늘에 의욕 충만해진 표정으로 워크숍에 임했다. 첫 순서는 2016년 실적 리뷰와 2017년 경영계획 발표. OE영업기획팀이 첫 주자로 나섰다. 지난 1년의 실적과 결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반성하고, 목표를 달성한 부분에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각 팀 발표 후에는 박근혜 전무의 강평이 이어졌다. 더불어 모두가 기다리던, 우수사원 표창에는 OE영업1팀 이혁민 과장과 OE영업2팀 이상아 대리, OE기술팀 박정균 과장이 호명됐다. 세 사람들

진심으로 축하하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발표 자리가 마무리됐으니 이제는 뜨겁게 팀워크를 다질 시간! 워크숍의 꽃인 바비큐 파티장에는 1년 동안 바쁘게 뛰어다닌 직원들을 위해 육해공 삼합의 영양만점 식단이 준비됐다. 팀과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참가자들은 화합의 장을 즐겼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모든 참가자들이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2017년 경영 달성 결의 트레킹에 나섰다. 직원들은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하다”며 순간을 만끽했다. 짧고도 길었던 OE영업담당 1박 2일 워크숍의 마지막은 다 같이 구호를 외치며 의지 다지기였다. 박 전무의 “2017년 목표 달성을 위해 멋지게 도전!”이라는 선창에 모두가 “도전! 도전! 도전!”을 외쳤다. 힘 있는 목소리와 밝은 표정, 옆에 있는 동료가 나의 에너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OE영업담당 전 직원에게 이번 워크숍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이다.



02. 진정 즐길 줄 아는 우리가 챔피언!

글 윤승섭(성남지점) 사진 최원석(영업관리팀)

‘오합지졸의 탄생, 선수들의 팀 이탈, 패배의 연속, 의욕 상실. 조용히 잊히는 듯했던 이들에게 남은 것은? 위로 올라가 승리를 맛보는 것뿐, 이 모든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단 몇 문장만으로도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이 사연은 바로 넥센타이어 사회인 야구단 로디안즈 이야기다. 2016년 11월, 이들이 마침내 사회인 야구 리그 토요루키 A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2010년 창단한 로디안즈는 현재 채널윙영팀장 주진섭 감독을 필두로 서울사무소와 서울, 경기 영업지점 소속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창단 당시 가진 것은 오직 열정뿐인 오합지졸이었다. 하지만 감독, 코치, 총무 등 실무진을 구성하고 리그 경기 외에 연습을 거듭하며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부원 간 호흡이 좋아 2012년 연북중학교 리그에서는 리그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그러나 다음 해부터 로디안즈에 시련이 닥쳤다. 부서 이동 등 개인 사유로 팀을 이탈하는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매년 리그 하위권에 머물며 습관처럼 경기에 지기 시작했다. 부원들의 단합이 무너지고 경기마다 선수 9명을 구성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러던 2015년, 주진섭 감독의 선임 이후 로디안즈는 팀 재정비에 나섰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모임을 만들어 소통의 장을 열고, 실력이 다소 뒤처지더라도 고르게 기회를 주며 진정으로 야구를 즐기게 했다. 선수들은 나날이 발전했고 참석률도 눈에 띄게 좋아지며 로디안즈는 하나가 되었다.

노력에서 나온 값진 성과

2016년 배재고등학교 SS토요리그가 개막했다. 이 리그는 A·B조별로 각 12개 팀이 1년 동안 총 11경기를 겨룬다. 각 조에서 4위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조별 우승 팀을 가리고 양 팀이 경기를 치러 최종 우승 팀을 가리는 방식이다. 손발이



얼어붙을 것 같았던 2월을 지나 뜨거운 여름까지 보내고 나니 로디안즈의 성적은 리그 3위! 8승 3패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 성적이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이유는 여러 차례의 역전승에 있다. 5점을 뒤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6점을 뿔아 역전승하는 경기가 팀 분위기를 바꾸는 원동력이 됐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때로는 냉정하게 평가했던 시간이 만들어준 성과였을 것이다.

플레이오프는 리그 사정상 하루 동안 이뤄졌다. 조 3위로 진출한 로디안즈에게는 매우 힘든 일정이었다. ▲1경기 3위 VS 4위 ▲2경기 승자 VS 2위 ▲3경기 승자 VS 1위의 살인적인 스케줄. 끼니마저 거르고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부원이 최선을 다했다.

엎치락뒤치락하던 첫 경기는 어느새 마지막 회 13대9로 넥센 로디안즈의 마지막 공격.

“지더라도 후회 없이 지자”는 주 감독의 응원을 듣고 부원들은 집중하기 시작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점수 내는 것에만 주의를 집중시켰다. 기적처럼 13대13 동점을 만든 뒤 13대 14로 역전에 성공했다. 두 번째 경기 또한 15대9로 로디안즈의 승리가 이어졌다. 드디어 마지막 경기가 시작됐다. 모두들 힘이 많이 빠진 상태로 경미한 부상자도 속출했다. 이제는 그야말로 악으로 강으로 가야 한다. 지친 부원들의 승리욕을 자극한 것은 주 감독의 “우리가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이제는 즐겨라!”라는 외침이었다. 강한 의지로 5회까지 5대3으로 리드했던 로디안즈는 아쉽게도 마지막 회를 넘기지 못하고 역전을 허용했다. 그러나 조별 준우승이라는 뜻깊은 결과를 낸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었다. 로디안즈는 올해에도 끈끈한 팀워크를 무기로 리그를 누빌 것이다.🏆





Teamwork

리더의 심장이 뛰면 우리도 뛰다

우리 시대 특급 리더십

가족, 팀,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리더는 큰 힘을 발휘한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최상의 팀워크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시대가 공인하는 리더에게 그 방법을 배워보자.

글 이명석 칼럼니스트

위기와 기회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간절히 묻는다. 냉철하게 세상을 진단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은 없느냐고. 다시 말해, 리더(leader)의 존재 말이다.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정확한 길을 보여준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앞장서서 책임지고, 험난한 길을 걸어갈 힘을 준다.



부드럽게 그러나 기필코 바꾼다 – 버락 오바마

퇴임을 앞둔 국가 지도자가 집권기 최고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전례 없는 인기의 주인공은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다. 물론 그의 뒤를 이을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추악한 선거전에 대한 반작용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은 물론 세계인이 그의 리더십을 몹시도 아쉬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버락 오바마는 ‘위 캔 체인지(We Can Change)’를 기치로 내걸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다. **그가 말하는 변화란 무엇이었나? 단순히 백인 천하의 미국 세계를 뒤엎자는 게 아니었다.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 등의 개혁 정책도 중요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전 정부의 독선적인 권위주의 정치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자유로운 기자회견으로 언론과 대화를 나눴다.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 추모식에서는 침묵으로 깊은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백악관의 생활을 담은 사진들도 그의 소탈한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청소부와 주먹을 맞부딪치며 인사하고, 직원이 몸무게를 재는데 뒤에서 몰래 발을 올려놓는다. 사람들은 그의 여정이 여기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퇴임 후에도 세계 정치계에 온화한 카리스마를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



마음을 사로잡은 뒤, 함께 걸어간다 –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의 여제,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다. 1986년부터 25년간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했는데, 그 타킷은 명확했다. 여성과 흑인,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처음에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일에 열중했고, 성적 학대를 당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큰 공감을 얻어냈다. 그리고 큰 힘을 얻게 되자, 미국과 세계를 뒤흔들 만한 일들을 벌여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오프라의 북클럽’은 독서 시장을 뒤흔들었다. 두껍고 어려운 책은 마라톤을 하듯이 읽어야 한다며, 회원들과 함께 마라톤 복장으로 나와 그 과정을 즐기게 했다. **“만일 고귀한 것, 옳은 것,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녀는 인종 차별, 아동 학대, 빈곤과 질병의 현장으로 달려가,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캠페인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토크쇼를 통해 그녀와 마음을 나눈 수많은 팬으로부터 나왔다. 리더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무난함보다는 차라리 무모함 – 스티브 잡스

어떤 점에서는 지나치게 독선적이었다. 어디로 갈지 종잡을 수 없었고 너무 자유분방하기도 했다. 스티브 잡스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리더였다. 그런데도 성공했다. 그는 기업과 연구소에 컴퓨터가 겨우 자리를 잡아갈 때 개인이 소유하는 PC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로 PC의 종말을 재촉하는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업계 전반이 공유하는 표준을 송두리째 부수어버려 모두와 싸워야 하는 입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힘 있는 기업을 이끈 특출한 리더였다.

잡스는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동료들과 날카롭고 공격적인 대화를 나눴다. 인문학, 디자인, 컴퓨터공학을 넘나드는 그의 상상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그의 말이 독단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 **그는 무난함을 싫어했고 차라리 무모함을 택했다. 그리고 적절한 해답을 찾기 위해 동료와 직원들을 다그쳤다.**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결국은 그 과정 전체를 설명하는 열쇠가 되었다. 되돌아보면 잡스는 일관되게 하나의 길을 갔고, 다른 이들을 그 길로 이끌었다. 모두가 잡스 같은 리더가 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곤란하다. 그러나 모든 리더가 잡스와 같은 면모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잡스는 자신도 모르는 답을 부하 직원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거꾸로 가도 천리를 간다 – 마윈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젊은 IT 리더들은 어느 정도는 잡스의 후예다. 자유로우면서도 예리하다. 젊은 트렌드를 캐치하기 위해 애쓴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역설적인 발상으로 태산을 옮기듯 큰 발걸음을 성큼성큼 내딛고 있는 리더가 있다. 중국의 마윈은 컴퓨터도 인터넷도 모르는, 소위 IT 무식자인 영어 강사였다. 그러나 그가 만든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뉴욕 주식 시장에서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누르고 올라섰다.

“나는 매우 멍청한 사람이다. 계산력도 떨어지고 말주변도 남보다 못하다.”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는 마윈은 어떤 리더십을 통해 사람을 이끌 수 있었을까? 무협 장르를 무척 좋아하는 그는 ‘삼장법사’를 롤모델로 든다.

딱히 내세울 능력은 없지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과학자로만 이뤄진 팀이라면, 농민이 리더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남들이 예상치 못하는 역설적인 방식도 그의 특징이다. 주주의 이익보다 알리바바 고객의 권리를 먼저 고려하는 정책에도 주주들은 그를 지지한다. 그의 용기가 좋은 답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라이프스타일의 리더 – 마사 스튜어트

어떤 리더는 사람들을 맹렬히 다그친다. 어떤 리더는 먼저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준다. 어떤 리더는 탁월한 협상력으로 사업의 폭을 넓힌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의 리더가 있다. 그냥 자신이 살아온 대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따라온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마사 스튜어트의 별명은 ‘살림의 여왕’이다. ‘미국 안방의 종신 대통령’, ‘살림살이의 예술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 삶은 아주 큰 변화를 겪어왔어요. 미국의 시골에서 태어나 일상을 비즈니스로 바꾸어왔죠.”** 그녀는 시골집을 고치고 요리를 차려내는 일을 하며, 이런 일의 노하우를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흔 살에 〈엔터테이닝〉이란 첫 책을 썼고, 쉰 살에 잡지 〈마사 스튜어트 리빙〉을 창간했다. 인터넷 시대에는 거대 미디어 기업을 만들어 집안, 정원, 식탁에서 행복을 만드는 일을 전파하기도 했다. 경영자로서는 가족 친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이국적 식물이 가득한 회사에서 닭을 키워 달걀을 나눠 먹기도 했다.

〈타임〉매거진은 ‘우아하게 늙어가는’ 미국인 10명에 그녀를 선정했다. 일흔다섯 살을 넘긴 지금도 손주들과 스포츠를 즐기며 “일흔은 새로운 신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행복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인생 자체가 롤모델인 리더가 되고 있다.



은둔의 레인메이커, 리더를 찾는 리더 – 워런 버핏

레인메이커(rainmaker)는 인디언 전설에 나오는 비를 내리는 주술사다.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기업에 초기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 또는 자선과 선행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다. 워런 버핏이 바로 레인메이커다. 그는 뉴욕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오마하에 앉아 주식 시장을 이끈다. 다른 투자자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한다. 그의 해안으로 찾아내고 투자의 비를 내린 기업을 알아내기 위해서다.

버핏은 단시일에 돈을 넣고 부풀려 이득을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한 이들은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는 언젠가 빛을 볼 가치주에 투자하고, 그 기업의 성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아낸다.** 그는 RC 윌리라는 시골 마을의 작은 양판점에 투자해 수백만 달러짜리 회사로 성장시켰는데, 무엇보다 창업자의 열정을 높이 샀다. 기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좋은 리더가 있는 기업이 결국은 성공한다. 그의 리더십은 어쩌면 동양의 스승과도 비슷하다. 스스로 앞장서는 리더가 되기보다는 리더가 될 재목을 찾아 키워낸다.¹⁰⁾



사건의 중심에 그녀가 있다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 무수히 많은 사람이 한배에 오른다. 방향키는 물론 감독이 쥐고 있다. 이경미 감독이 지나온 항로는 어땠을까. 그녀는 모든 질문에 신중히 답해주었다.

글 조병례 사진 이대영 장소협조 카페폴(070-8240-5540)

‘중심’이라는 무게

이경미 감독의 최근작 <비밀은 없다>는 남편(김주혁)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갑작스럽게 딸을 잃은 ‘연홍(손예진)’이 홀로 집요하게 딸의 행방을 좇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다. 독보적인 캐릭터와 디테일한 연출로 지난 연말 제36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감독상, 제17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대상, 2016 여성영화인시상식 각본상까지 받았다. 극장에서 흥행하진 못했지만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극장 상영이 끝난 후 더욱 관심이 높아져 SNS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또한 주연 배우 손예진이 다수의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해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이끌어낸 이경미 감독의 공로가 더욱 돋보였다. 이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공효진 주연 영화 <미쓰 홍당무>(2008) 역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전에는 단편 <잘돼가? 무엇이든>(2004)을 연출했는데 너무나 다른 두 직장 동료가 갈등을 겪는 이야기다.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담아 그해 미장센 단편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등을 휩쓸었다.

“상을 받으면 언제나 좋아요. 흥행하진 못했지만 <비밀은 없다>에 평론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좋은 평가를 해줘 감사하고요. 최근에는 여성 감독과 배우들의 활약으로 좋은 작품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반가워요.”

영화감독은 작품 기획부터 제작, 흥행 스코어를 예의주시하고 평단의 분석까지 귀담아들어야 하는 존재로 전 과정의 중심에 자리한다. 모든 것을 책임지는 위치지만,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녀가 능동적으로 일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모두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죠. 수동적으로 일하면 균형이 생기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믿고 함께 일하고 싶어지려면 대체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영화 한 편을 완성할 때쯤이면 동료들과 신뢰가 쌓이고, 이는 다른 작품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일하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해도 편견을 갖지 않으려 노력한다. 누군가의 평판에 대해서도

쉽게 단정 짓지 않는다. “그건 대개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결정할 때도 있지만 시간을 길게 두고 보려 하죠.”

믿음을 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 되기’ 아닐까. 긍정적인 결과만 낳으면 좋겠지만 에너지 소모가 큰 데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도 쉽다. 이 감독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전제가 바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럴 때는 리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생기죠. 전체를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이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팀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야 한다. 리더의 역할이 그러하기에

자신의 작품에서 열연해 각종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휩쓴 손예진 배우를 보는 이 감독의 시선이 남다를 듯하다. 감독의 열정과 배우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목마름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켰다. 신뢰라 함은 서로 원하는 바를 꿰뚫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을 텐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신뢰가 최상의 효과를 낸 것 같다. 이 감독은 팀워크에 ‘대화’가 늘 최선책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믿고 맡기는 순간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상대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점은 내가 상대의 생각을 흡수할 때, 그게 뭔지 모른 채로 흡수하면 위험해요. 정확히 이해해야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향을 고민하며 가는 길 위에서 그녀의 작업과 팀은 유기적인



비밀은 없다
&
미쓰 홍당무



©CJE&M
©빅하우스(주)벤티지홀딩스

생명체나 다름없다. 감독은 그 안에 몸을 싣고 유연하게 흐름을 타야 한다.

같이의 가치를 이해하기

점차 달라지고 있지만 영화 제작 현장은 여성보다 남성 종사자 비율이 높다. 남녀의 일에 차이가 있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사회 분위기가 그러하기에, 남성 문화에 익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협업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또한 영화 촬영은 소모전이므로 평소 체력 관리를 잘 해둬야 한다. 이 감독 역시 촬영을 전공하고 싶었으나 체력 한계가 팀에 폐를 끼친다고 느낀 적이 있다. 극복하려 애썼지만 포기해야 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좋은 파트너를 찾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공동 작업에 폐가 된다는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그런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선입견을 갖는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페미니즘이 화두가 된 요즘은 남자들도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그녀의 작업과 팀은
유기적인 생명체나 다름없다.
그 안에서 유연하게
흐름을 타야 한다.

같고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느냐에 따라 작업 환경은 천차만별이다.

그녀의 지향점은 같은 목표를 갖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소통하며 재미를 느끼는 것, 결국 뭔가를 이뤘을 때의 기쁨을 공유하는, 그 쾌감을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다. 필모그래피가 쌓이면서 이 감독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다고 했다. 오해하는 일이 적어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인터뷰 이후 이 감독이 2016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의 작업이 다양성 인식 재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문득, 그녀와 한배를 타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⑩



창녕공장 품질검사파트 6인

든든한 지원군, 나의 동료

하루 중 어쩌면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직장 동료. 나이와 직급을 불문하고 사소한 고민마저 나눌 수 있는 끈끈함은 서로의 이해와 소통 속에서 탄생한다. 창녕공장 품질검사파트에서 그 특별한 동료애를 확인했다.

글 조병례 사진 서봉섭

창녕공장의 해결사

남다른 팀워크를 자랑하는 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을 찾아갔다. 공장 내 회의실에서 한은수 파트장과 김종혁 과장, 방효진 직장, 남병철 직장, 시병진 대리, 윤연정 사원이 취재팀을 반겼다. 이들은 창녕공장 품질검사파트 소속 6인. 1993년에 입사한 23년 차부터 3년 차 막내까지, 서로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느껴져 이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는 내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거쳐 타이어가 완성되는데,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검사 공정을 거쳐야 한다. 검사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을 검출하고 분석해 결점을 찾아 제품의 품질을 유지,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품질검사파트에서는 타이어의 외관 및 내부, 비드부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균일성 검사가 이어진다. 외관검사에서 합격한 제품은 타이어 균일성 검사공정인 Uniformity, Dynamic Balance 측정 공정을 거쳐 X-Ray 검사 과정으로 이뤄진다. Uniformity 검사는 특히 제품의 강성과 치수불균일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공정이다.

하나의 타이어가 모든 검사 과정을 거치는 데 약 한 시간 소요된다. 여기서 합격해야 비로소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탄생한다.

“성능 좋은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해야 하는 만큼 검사파트는 타이어 생산에서 중요한 공정이지요” 한은수 파트장이 말했다. 창녕공장의 자동화 설비는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높은 수준을 갖췄다. 설비 운영에 사고나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것은 사람의 몫. 창녕공장이 날로 성장하는 배경에는 모든 공정이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임직원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교대로 근무하며 제품의 안전성과 완성도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늘 손발이 맞아야 한다. 오늘 모인 이들은 한목소리로

2년 전 창녕공장 증축 이야기를 꺼냈다. 창녕공장 설립 계획 중 두 번째 단계가 실행되는 과정이었다. 업무가 안정화되기까지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종혁 과장이 공정상·서류상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우리 팀원들이 데이터화하고 문서화해서 공유하고 문제를 개선했죠. 그때 잘 협력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워요.”

지난해 10월에는 창녕공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육대회가 열렸다. 13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창녕 공설운동장에 모인 것. 윤연정 사원이 “검사파트가 종합 3위 성적을 기록했고 장기자랑 성적이 특히 좋았어요”라고 설명하자 당시 기억을 떠올리는 이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준비하기에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시선을 잡아끄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도 전해졌다. “우리 애들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하는 새삼스러움도 있었다며 선배들이 웃었다. 이밖에도 축구, 족구, 배구 시합 중 배구 경기에서 2위를 거뒀다.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눈빛을 읽으려 애쓰고 진한 동료애를 발휘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야기를 더 나눠보니 대회 며칠 후에는 같은 조에 소속된 사우들이 모여 1박 2일 여행도 다녀왔다고 한다. 마산에서 선상낚시를 즐겼다는데 “사실 생선이 많이 잡히지 않아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었어요”라며 방효진 직장이 웃자, 다른 이들도 웃음이 터졌다. 이렇게 계절마다 사우들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품질검사파트 팀워크의 비법인 듯하다.

가족만큼 끈끈한 우리

인터뷰를 기회 삼아 그동안 쑥스러워 말하지 못했던 서로의 칭찬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시병진 대리가 적극 나섰다. “한은수 파트장님은 업무에 철저한 동시에 재밌는 리더여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직 어린 자녀 이야기할 때는 자상한 아빠의 면모도 보여주시죠. 윤연정 사원도 평소 정말



착실하고 프로페셔널한 동료예요. 우리 파트 모두가 성실하고 배려심이 깊어서 같이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 팀으로 근무해온 이들이 취재팀의 눈에 가족처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오늘 저녁에는 인터뷰에 응한 6인을 비롯해 품질검사파트 소속 사우 30여 명이 〈헬로우 넥센〉 출연을 기념해 회식 자리를 갖는다고 했다. 하루의 수고를 회식으로 풀 때는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했다. “술을 많이 마시기보다 서로 이야기 나누고 들어주는 것이 더 익숙해요”라는 남병철 직장의 답이 돌아왔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의 동의를 표했다. 사소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취재팀과 이야기를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러 이동하는 동안, 회식을 위해 또는 교대근무를 위해 출근한 품질검사파트 사우들과 한명 두명씩 만나게 됐다. 손을 들어 인사하는 이들의 모습이 정다워 보여 취재팀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인터뷰 자리가 낯설고 최고의 한 컷을 위해 반복되는 사진 촬영이 어색했을 텐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창녕공장 검사파트에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창녕공장 품질검사파트가 새해 인사 드립니다.



한은수 파트장

각자 목표하는 것을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통하는 품질검사파트가 됩시다.



방효진 직장

안정된 가정에서 건강하고 화목하게 한 해 날 수 있기를 기원할게요.



남병철 직장

결혼 적령기인 사우들, 좋은 배필 만나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길 바랍니다.



김종혁 과장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행복한 한 해 되세요.



시병진 대리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 지금 까지 해온 것처럼 활기찬 파트가 되길 바랍니다.



윤연정

지난해에는 사건사고도 자연재해도 많았지만 올해는 모든 분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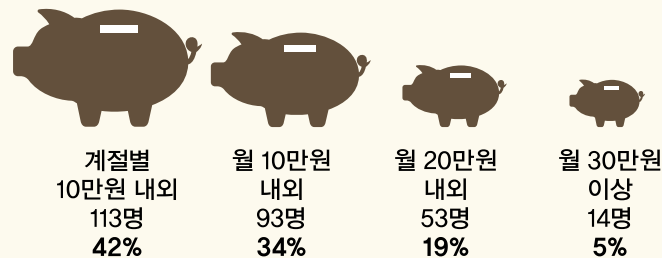
당신의 패션 지수는 몇 점입니까?

2016년 11월 22~25일 진행, 총 273명 참여

Q 나는 자칭 타칭 '패션피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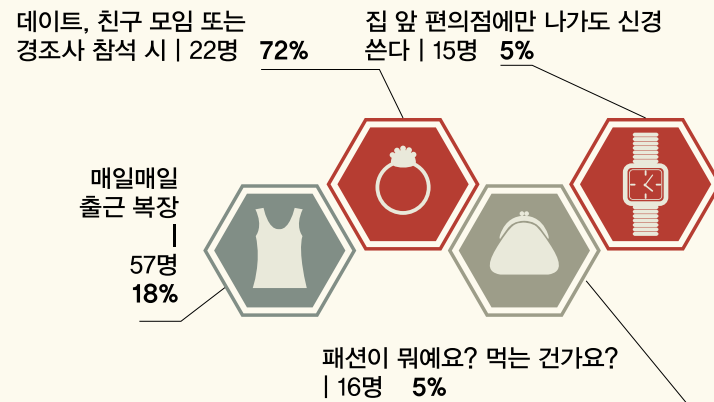


Q 매력적인 패션을 완성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Q 패션 스타일에 대해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복수응답)



Q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패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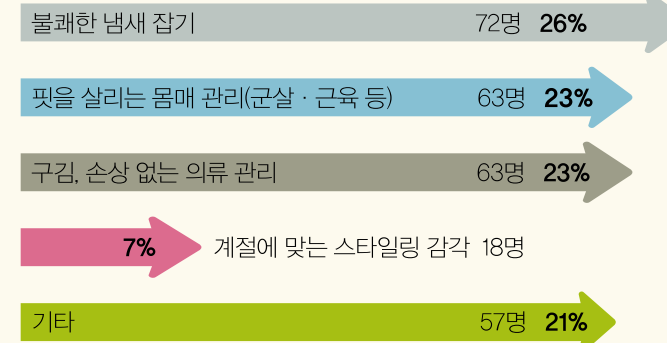


- 과한 색상의 옷+맞지 않는 코디+어울리지 않는 액세서리, 3단 콤보! • 김은진
- 꼭 끼는 스키니 진을 입은 남자. 남자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싫어요. • 조영화
- 결혼식장에 등장한 등산복처럼 예의에 맞지 않는 옷차림. • 강지은
- 한겨울 발목을 드러낸 패션. 복숭아뼈 살이 트는 게 다 보여요. • 김영훈
- 상표명이 크고 선명하게 드러난 옷이나 과하다 싶을 만큼 액세서리를 착용한 졸부 스타일. • 조인환
- 청청 패션. 우리는 정우성이 아니잖아요. • 신미진

비슷비슷한 옷이라도 입는 방법에 따라, 혹은 어떤 아이템과 함께 스타일링하느냐에 따라 패션 지수가 천차만별로 나뉩니다. 넥센인들은 자신만의 패션 센스를 높이기 위해 어떤 아이템을 구입하고 매치하나요? 넥센인들이 패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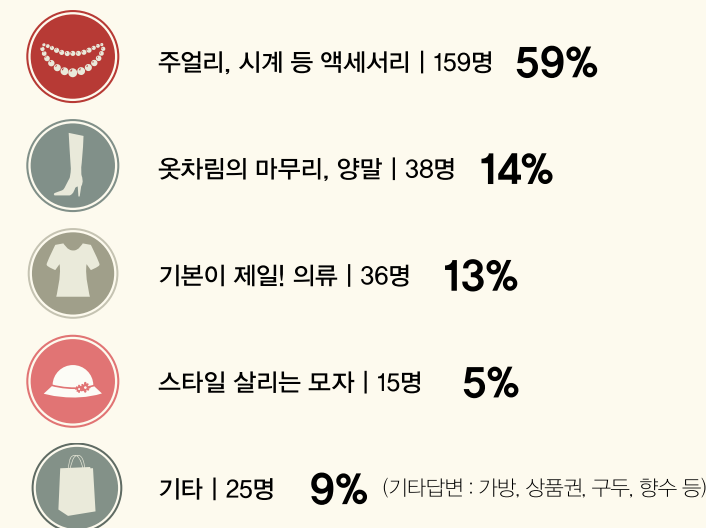
정리 김수진

Q 패셔니스타가 되기 위해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 패션의 기본은 예의입니다. • 김상문
- 향기 나는 섬유유연제를 꼭 사용해요. 불쾌한 냄새는 패션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 이호섭
- 패완열! 패션의 완성은 얼굴, 피부 및 표정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 박대희
- 꾸미기의 기본은 청결이죠. 깨끗함이 곧美라고 생각합니다. • 김민정

Q 신년을 맞아 선물 하거나 받고 싶은 패션 아이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센스 있는 그 남자, 그 여자

사회인을 위한 패션 제안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지지분한 쟁반에 나온다면?
그 음식의 맛과 향, 식감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식당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기 힘들다. 직장 생활도 비슷하다. 센스 있는
사회인이 되는 법, 옷부터 점검하자.

글 우용표(더 코칭 & 컴퍼니 대표)

TOP에 따라 옷을 입자

옷을 입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TOP'다. 'Time', 'Occasion', 'Place' 이
세 단어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TPO'라고도
한다.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의미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가는 경우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두말할 것
없다. 검은색 옷이어야 한다. 화려한 노란색이나
오렌지색 옷을 입고 가는 것은 고인은 물론
그 유가족에게 대단한 실례다. 슬픈 일이 아닌
기쁜 일에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간 하객, 과연

잘한 것일까?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다. 신부와
비슷하게 옷을 입는다거나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옷을 입는 것은 결혼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실례가 된다.

상황에 따라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직장인의
기본이다. 중요한 회의에 개성을 강조하는 찢어진
청바지나 해골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참석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벤처기업이나
광고회사같이 창의성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회사의 경우 자유로운 차림을 권장하기도 한다.
점잖은 상황에서는 점잖게, 발랄한 상황에서는
발랄하게. 분위기를 살핀 뒤에 입으면 크게
지적받거나 손가락질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믹스매치로 새로움을 더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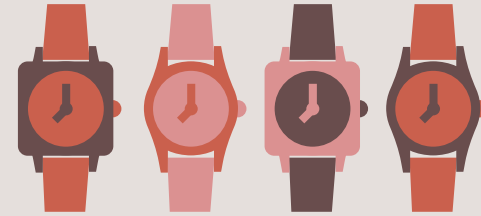
여성의 경우 러블리한 룩을 연출하고 싶다면 스커트나 바지에 니트를 매치해보자. 부드러운서 사랑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플라워 프린트 셔츠는 깔끔하면서도 청순한 느낌을 동시에 준다. 가방을 구두 색깔과 맞추는 것으로 섬세한 데일리 룩을 완성해보길 바란다. 시크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검은색 또는 흰색의 단색 슬랙스에 오버핏 코트를 매치해보자. 그런 다음 클러치백과 에나멜 로퍼로 시크함을 완성해보자. 포인트가 들어간 화이트 블라우스를 루스하게 입어 자유분방함을 표현하거나, 정형화된 핏으로 세련된 직장인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자유 선택이다.

보수적인 느낌이 필요할 땐, 일자형 슬랙스나 스커트를 입어 전문적이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주도록 하자. 진주 목걸이를 활용해 점잖음과 넥 라인을 완성해보는 것도 좋다. 컬러가 다른 투피스를 착용할 때는 가방과 슈즈 컬러를 매치하도록 하자. 깔끔하게 떨어지는 슬랙스에 파스텔 톤 또는 브라운 롱 코트를 조합하면 패서너블하면서도 깔끔한 룩이 완성된다.

이밖에도 비가 오는 날엔 레인부츠, 눈이 오는 날엔 어그부츠가 실용적이고 좋지만, 직장 근무용으로는 가급적 피해야 할 아이템이다. 꼭 신어야 한다면 직장엔 별도의 신발을 가져다두고 바꿔 신도록 하자.

체형에 맞게 옷을 입자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만 일을 한다면 상관없다. 같은 부서 사람들끼리는 옷과 상관없이 직급과 업무 능력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같은 부서가 아닌 옆 부서 또는 협력회사와 자리를 함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외부 행사 또는 외부



회의에 참석한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혈령한 차림의 참석자는 발언의 신뢰성을 얻기 힘들다. 그만큼 핏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웬만하면 너무 혈령하게 입지 않도록 하자. 특히 부장님들. 너무 옛날 스타일로 바지를 길게 입어 바지가 구두 위에서 마구 구겨진다면 바지 길이를 줄여보실 것을 권한다. 다리 길어 보이려고 벨트를 허리가 아닌 갈비뼈까지 올려 배바지가 되는 것도 자제하길 바란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민망할 정도로 옷을 달라붙게 입는 사람들과 마주친다. 저렇게 입으면 팔이나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옷을 너무 작게 입으면 바보스러움을 넘어 한심해 보인다. 교복을 생각해보자. 심하게 줄여서 스키니 청바지 같은 교복 바지 또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학생들을 보면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 힘들다. 물론 실제 성격이나 행동은 스키니 교복 바지, 미니스커트 교복 치마를 입은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한번 박힌 '이미지'가 바뀌긴 어렵다.

그러니 자신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거나 손상을 주는 옷은 피하도록 하자. 핏에 대한 결론은 간단하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 아무리 비싼 브랜드의 정장이라도 너무 크거나 작게 입으면 말 그대로 없어 보이기 십상이다.❷

Tip 패션 트렌드 용어 배우기

레이어드(Layered)

여러 개의 아이템을 겹겹이 입는 것을 말한다. 속에 입은 것이 겉에 보이게 입거나, 긴 소매의 블라우스 위에 반소매의 스웨터나 재킷을, 원피스 안에 체크셔츠를 입는 등 종래의 습관을 무시하고 겹쳐 입는 것이 특징이다.

매니시(Mannish)

여성의 옷에 남성의 이미지를 넣은 스타일로 남성적인 매력을 여성복에 표현하는 용어다. 루즈하고 보이시한 핏이 특징으로, 무채색 · 브라운 · 네이비 등 어두운 컬러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하이패션(High Fashion)

프랑스어의 오트쿠튀르와 같은 의미로 디자이너의 철학이 반영된 작품성이 있는 디자인, 고급 소재와 장식이 주요 특징인 패션을 의미한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소 난해하기도 하지만 디자인을 선도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톤온톤(Tone on tone)

'톤을 겹친다'라는 의미로 아이보리에 베이지, 황토색, 브라운, 초콜렛 색 등 동일 색상에 속하면서 명도가 다른 색끼리 코디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여성잡지나 패션 기사를 보면 톤온톤 코디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스티치(Stitch)

남성 수트나 셔츠의 바느질이나 땀이 엮인 코를 뜻한다. 바느질 자국 같은 모양으로 브랜드를 상징하는 스티치 형태가 있기도 하다. 자칫 단조로운 수 있는 옷에 스티치를 숨기거나 과감히 드러내어 옷에 디테일을 살릴 수 있다.



양산공장 PCR파트 나상출 조장 부부의 나들이

두 사람, 향기로 피어오르다

웃는 얼굴만으로도 좋은 느낌을 주는 두 사람을 부산의 한 공방에서 만났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풍기는 분위기에서 이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

글 조병례 사진 서봉섭 촬영협조 뿌아공(051-916-1641)



깔끔한 커플 룩으로 등장한 양산공장 PCR파트 나상출 조장과 부인 이미원 씨. 서로를 바라보는 눈동자부터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달달함이 뚝뚝 흐르는 듯했다. 덕분에 오늘 인터뷰가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 〈헬로우 넥센〉을 통해 부부가 체험할 것은 석고방향제 만들기다. 석고방향제는 액체 형태 석고에 향을 첨가한 다음 원하는 모양의 틀에 넣고 30분 정도 굳히는 간단한 과정으로 완성된다. 시간이 지나 향이 다 소진되면 석고에 좋아하는 향수를 뿌려도 된다. 석고가 그 향을 흡수해 다시 내뿜는다. 어떤 모양의 방향제를 만들지 정하라는 공방 선생님의 말에 미원 씨는 가장 먼저 두 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골랐다. 아이들과 동행하지 않고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도 부부의 우선순위는 아이들인 듯했다. 석고방향제를 만드는 내내 준엽이와 준서

두 아들을 떠올리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양을 고르고 나중에 함께 다시 와야겠다고 말할 만큼, 부부는 끈끈한 가족애를 보여줬다. “오늘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을 할 거라는 연락을 받고 어떤 건지 검색해보고 왔거든요. 어려울까봐 걱정했는데 괜한 생각이었네요.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기뻐요.” 나 조장 부부는 모두 경남 합천 출신으로, 어른들의 소개를 받아 인연을 맺었고 가정을 꾸렸다. 나상출 조장은 PCR파트에서 17년째 근무하고 있다. 넥센타이어와 함께하는 동안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얻은 셈이다.

우리 가족만의 즐거운 추억

나 조장 가족은 지난해 11월 휴가 일정 동안 필리핀 세부로 짧은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모처럼 떠난 해외여행 내내 무척 즐거웠으며 함께 웃는 부부의 모습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지치지 않고 물놀이를 즐기던 아이들처럼 부부도 잘 놀고 폭 쉬며 충전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늘 아침조 근무인 터라 새벽같이 출근하는 아빠와 학교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학원으로 직행해야 하는 아이들. 그래서 부부는 여건이 허락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자전거를 타러 나가거나 공원 나들이 가는 길이 단골 코스다.

사실 미원 씨는 10여 년 전에도 사보에 등장한 적 있다. 남편의 동료 부인들과 모여 재봉틀로 파우치 만들기에 도전하는



내용이었다. 지난밤 아이들과 함께 당시 사보를 펼쳐봤다는 그녀는 두 번째 사보 출연이 긴장되면서도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다며 웃었다. 네 살, 세 살 아기였던 준엽이와 준서가 훌쩍 자라 “엄마 이때는 젊었네” 하고 말했다는데, 당시 사진을 확인한 에디터 눈에는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차이가 없어 놀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커다란 카메라 앞에서도 경직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놓는 그녀의 모습은 역시 사보 촬영 유경험자다웠다.

예나 지금이나 나 조장은 자상한 남편, 좋은 아빠인 듯하다. 회사 일이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집안일도 함께한다는 미원 씨의 설명이 지금도 유효하리라 짐작된다. 아이들이 좋은 것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가장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동시에 친근함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나 조장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올해 6학년, 5학년이 될 두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이미원 씨가 답했다. “인성이 바른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사춘기가 벌써 시작된

것 같아서 저희도 많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한 적도 있을 듯하다. “잔소리 덜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라고 말하며 웃는 나 조장.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아이가 하더라고요. 얼마 전 큰아이가 예민해 보였던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죠. 아이가 하는 말을 많이 들어려고 하고, 간섭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아이와의 관계가 발전했어요. 앞으로도 아이를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들에게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다는 그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아이들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려 한다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아이들도 고마워하지 않을까.

새해에도 행복합시다

석고방향제를 완성한 뒤 나 조장 부부에게 좀 더 오붓한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송도해수욕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사람은 바닷바람을 쐬며 걷다가 산책로 한



새해를 맞아
부부는 서로에게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자는
애정 어린 인사를
건넸다.



쪽에 마련된 인어 동상 포즈를 흉내 내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새해를 맞아 부부는 서로에게 애정 어린 인사를 건넸다.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아이들을 잘 키우자는 약속도 덧붙였다. 또한 이 자리에 준엽이와 준서가 함께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덕담을 보냈다. “바르게 키우고 있어 든든하다. 운동 즐기는 것도 좋지만 다치지 말고 잘 자라다오.”

이번에 만든 석고방향제는 몇 개월간 은은한 향을 내뿜으며 보금자리를 향기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앞으로 나상출 · 이미원 부부에게도 향기로운 날들만 있기를 기원한다.🍀





넥센타이어 자취 4인방

나 혼자 산다! 아주 잘 산다!

독립만 하면 포근하고 아늑한 내 공간을 만들겠다던 다짐은 어디로 갔을까.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사 다니기 바쁜 고충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 끼니마다 거창하게 한 상 차려 먹겠다던 결심은 또 언제 무너졌더라? 요즘은 반찬가게도 많고 편의점 도시락도 훌륭한걸 뭐! 나름대로의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네 명의 자취인과 만나 홀로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글 조병례 사진 서봉섭

에디터 | 오늘 주제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얼굴들이네요. 네 분의 자취 생활은 어떤가요?

주호진 | 최원석 대리와 사택에 살고 있어요. 5개월 됐으니 제 자취 경험이 가장 짧네요. 김기남 사원과 입사 동기고요.

김기남 | 저는 집주인 부부가 좋아서 한집에 3년째 살고 있어요.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하다는 맹점이 있지만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도 돈을 더 올려달라는 말씀도 없고요.

김한수 | 운이 좋았네요. 저는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힘든

일을 여러 번 겪었어요. 지금 사는 곳은 비교적 깨끗하고 지낼 만해요. 가족과 워낙 오래 떨어져 지내다 보니 지금은 고향집에 가면 거긴 부모님 댁이고 내 집은 서울에 있다는 느낌이에요.

최원석 | 전 집에 가면 좋던데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요. (일동 웃음) 사택에서 회사까지 30초 걸려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지요. 긴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으면 주말에도 호출 받고 출근할 때가 있거든요.

주호진 | 전 아침에 많이 잘 수 있어서 좋아요. 회식 때 집에 가려면 “네가 벌써 가면 어떡하냐”고 붙잡힐 때가 있긴 하지만요. 하하하.

최원석 |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찾아오기도 해요. 예전에 함께 살던 과장님이 돌보던 길고양이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안타깝게 죽고 남은 한 마리가 변함없이 놀러 오거든요.

주호진 | 제가 사택에 입주하고 처음 배운 게 고양이 밥 챙겨주는 거였어요.

김한수 | 훈훈한데요? 저는 집 구조에 속아서 입주한 경험도 있어요. 한 집에 가벽을 세워 두 명이 살게 한 거예요. 방음도 안 되는데 옆집 사람은 새벽까지 시끄럽게 굴 때가 많아서 힘들었어요.

주호진 | 다음부터는 집을 구하는 스킬이 생겼겠네요.

김한수 | 네. 그 외에도 별의별 일을 다 겪었거든요. 그런데 자취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먹는 이야기잖아요. 자취 생활 초기에는 요리 잘 해먹는 게 로망이었는데 말이죠. 요즘은 반찬가게도 많으니 사다 먹고 냉장고는 냉동식품이나 맥주로 채워놔요.

김기남 | 저도 조리용 와인까지 구비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요리를 안 해요. 재료값에 요리하는 시간 생각하면 그냥 사 먹는 게 나으니깐요.

에디터 |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난감할 테고요.

김기남 | 음식물 쓰레기는 이걸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까지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처리해요.

주호진 | 우리는 냉동실에 모아두면 누가 모르고 녹여서 먹을 수도 있어요. (일동 웃음)

에디터 | 요리뿐만 아니라 자취 생활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 로망을 실현시켰나요?

주호진 | 로망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방이 너무 작아서 뭘 못 해요. 최원석 대리님이 사택에서 나가면 그 방으로 옮길 생각이예요. 거긴 궁궐 같아요.

김한수 | 야망을 품고 있네요. 하하.

최원석 | 아직 나갈 생각 없어요. 어릴 때는 자취해보고 싶어서 집과 학교가 버스로 네다섯 정거장에 불과한데도 나와서 지냈어요. 큰 집을 얻어서 친구들과 같이 2년을 살았더니 피폐해지더라구요. 자취집이 친구들 사랑방이 돼 피곤하기도 하고요. 재미는 있었죠. 어릴 때 해보고 싶은 걸 해봐서 지금은 아쉬움이 없어요.

주호진 | 최 대리님은 자취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배달음식 쿠폰도 많고요. 샤워도 무척 빨리 해요.

에디터 | 샤워 이야기에 생각났는데, 지난여름 말도 못 하게 더웠잖아요. 이번 겨울도 무척 춥고요. 냉난방비 부담은 어때요?

김기남 | 여름에 정말 버티기 힘들어서 에어컨 주문하려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많았는지 대기 순위가 너무 밀려서 설치하지 못했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을 때는 찜질방으로 피신했어요.

김한수 | 예전 집에서 보일러가 터진 적이 있어요.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줘서 제 돈을 써야 했고, 생활비가 없으니까 난방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보일러를 최소한만 틀고 집에서는 옷을 잔뜩 꺼입

고 버텼어요.

김기남 | 저도 그래요. 지금은 방에 난방텐트를 들었어요. 아주 좋는데 단점은 온도 차 때문에 텐트 밖에 결로 현상이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죠.

최원석 | 겨울나기에는 플리스 소재 내복과 수면 양말이 최고죠. 그리고 사택에 같이 사는 동료들에게 늘 얘기해요. 혼자 있을 때도 냉난방비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라고요.

에디터 | 저도 자취 경험이 있어서 너무 공감되고 재밌네요. 심심하고 외로울 때도 많지 않나요?

최원석 | 친구들과 자주 모여 술 마시다 보니 심심할 틈이 없었어요. 한번은 집에 7, 8명이 모여 술을 마시다 한 명이 나가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갔나 보다 했는데 다음 날 아침 나타나서 부끄러워하며 하는 이야기가 가관이에요. 아래층의 저희 집 호수에 들어가서 잔 거죠. 마침 그 집도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건데 그 다음이 더 웃겨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옆에 메모가 있더라고요. '너무 피곤해 보여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꼭 쉬고 가세요'라고. 실화예요. 물론 남자고요.

김한수 |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는데 아래층 집주인도 대단하네요.

주호진 |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대리님!



**영업관리팀
최원석 대리**

오랜 자취 후
사택 거주 2년 차
부산 출신



**성과혁신팀
김한수 사원**

자취 경력 10년차
스킬 만렙
광주 출신



**채널운영팀
주호진 사원**

입사 후 시작된
사택살이 5개월 차
경남 진주 출신



**채널운영팀
김기남 사원**

섬이 좁대!
서울 생활 8년 차
제주도 출신

김한수 | 오늘 너무 충성 모드대!

에디터 | 그런데 여러분은 취미 생활로 뭔가 즐기고 있나요?

최원석 | 평소에는 약속이 많은 편이어서 쉴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장에 가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좀이 쑤셔요.

김한수 | 그런 활동이 확실히 필요해요. 안락함이 가장 위험한 거 같아요. 저는 커뮤니티 활동을 꾸준히 했어요. 친구도 사귀고 소소한 이야기 나누면서 노는 거죠.

김기남 | 색소폰을 배웠어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자취방에 방음 부스까지 마련했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사를 못 해요. 집 안에 뭘 많이 벌여놨어요. 친구들은 가끔 만나지만 직장 다니니까 자주 보진 못해요. 고향에 내려간 친구도 있고요.

김한수 | 요즘은 오히려 제주로 내려가면 성공한 거 아니예요?

김기남 | 그렇죠. 땅값도 많이 올랐고요. 고향이 제주라 좋은 점은 굴을 돈 내고 사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에디터 | 옆에서 다들 부러워하네요. 다른 누군가 자취를 시작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요?

모 두 | 자취는 경험 삼아 한 번 해보는 걸로 하세요.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화장실이 그렇게 금방 더러워지는지,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몰랐어요.

에디터 | 집을 안 떠나면 어머니만 고생하시잖아요. 다들 집에선

아무것도 안 하시죠?

최원석 | 엄마는 어차피 고생하니까.

김한수·주호진·김기남 | 너무했다~ 방금 저 말은 꼭 사보에 넣어주세요!

최원석 | 농담이에요. 옥탑에 살거나 마당을 쓸 수 있다면 파라솔을 강력 추천해요.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분위기 내기 그만이죠.

주호진 |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주진섭 채널운영팀장님 덕분에 제 자취 생활이 행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하고 싶어요. 아침 저녁으로 불러서 밥을 사주세요. 이현구 과장님은 사보 촬영 간다고 했더니 인터뷰 훈련도 시켜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시켜서 하는 말 아니예요. 하하하!¹⁰



끝없는 도전 내일의 우리

우리가 지나온 길이 우리를 보여줍니다.

올해 새롭게 써 내려갈 우리의 흔적은
희망의 싹을 틔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겨울용 타이어 Winguard ice SUV 도심 속 질주를 준비하라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월동 준비로 분주하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겨울철 안전 운행은 타이어부터 시작된다.

글 박기석(상품기획팀)



겨울용 타이어는 왜 필요한가?

타이어는 계절별로 사계절용, 여름용, 겨울용 등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여름용 타이어는 고속주행 성능 중심으로 설계된 제품이다. 고성능차량이나 유럽 수입 차량에 주로 장착되며, 온도에 따른 물성변화와 눈길 제동력이 거의 없어 겨울철 주행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겨울용 타이어는 사계절용 타이어의 취약한 겨울철 성능을 보강한 제품이다. 일반타이어와 달리 타이어의 트레드 블록이 조밀한 홈에 적용되어 있고 타이어 옆면에 그림과 같은 '雪山-Severe Snow' 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사계절 타이어', '퍼포먼스 타이어'로 불리는 여름용 타이어의 고무는 낮은 온도에서 대부분 딱딱



해지는 성질이 있어 섭씨 7℃ 이하에서 타이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이와 달리 고무 물성을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설계한 겨울용 타이어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더라도 성능 저하를 막아주고 안전한 운행을 돕기 때문에 필수장비로 갖춰야 한다.

흔히 겨울용 타이어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만 쓰인다고 생각하는 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겨울용 타이어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다양한 노면 조건을 고려해 설계된다.

눈·얼음뿐만 아니라 눈이 녹거나 제설 때문에 발생하는 젖은 노면 및 빙설로(눈과 얼음이 동시에 쌓인 도로) 등 결빙 구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폭설과 혹한이 반복되는 국내에서는 겨울용 타이어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¹⁾

대한민국 SUV를 위한 **WINGUARD ice SUV**



겨울을 완벽 대비하는 운전자라면 한국의 겨울 지형과 기후 후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겨울용 타이어 '윈가드 아이스 SUV'를 주목하자.

'윈가드 아이스 SUV'는 우리나라의 스포츠유틸리티 및 RV 보급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일반 승용차용과 달리 SUV만을 위해 설계된 전용제품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차량뿐만 아니라 국내 출시된 다양한 SUV 및 RV에 장착할 수 있는 규격이 개발되어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 또한 넓혔다.

세련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기능에도 눈길을 끈다. 멀티 엣지 블록 설계를 통한 눈길의 견인력과 견고한 숄더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상고와 하중특성을 가진 SUV 안전 설계기법을 적용했다.

특히 겨울용 타이어의 대표적인 단점인 빠른 마모와 소음을 줄이기 위해 트레드 부분의 고무 물성을 별도 설계하여 우리나라의 주행조건에 최적화시켰다. 또한 젖은 노면에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향성 디자인채용으로 강력한 배수성 또한 확보했다.

추위 잇은 스포츠 무대 속 넥센타이어

야구 · 축구 · 하키 · 스피드레이싱 등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에 힘쓰는 넥센타이어.
전 세계에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차가운 겨울에도
힘차게 달리고 있는 넥센타이어의
동계 스포츠 후원 소식에 귀 기울여보자.

글 신승훈(전략마케팅팀) 사진 전략마케팅팀





눈길에 강한 브랜드 구축 강화

지난해 11월과 12월, 이탈리아·중국·카자흐스탄 등 9개 국가에서 넥센타이어가 후원하는 동계 스포츠 4개 종목의 대회가 개최됐다. 넥센타이어는 각 경기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했으며, 선수 유니폼과 대회 설치물 브랜딩을 통해 미디어 노출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주요 거래선을 초청해 VIP 박스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호스피탈리티 프로그램(Hospitality Program)과 제품전시 및 SNS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브랜드의 선호 이미지를 강화하는 마케팅 활동도 전개했다. 한국에서는 11월 25~26일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에서 FIS 스노보드 빅에어 월드컵이 열렸다. 넥센타이어는 국내홍보를 위해 SBS스포츠, SPOTV의 경기 중계 프로그램과 연계해 TV 광고를 방영했으며, 현장 부스 운영, 포토월 설치 등 주요 거래선 초청, 호스피탈리티 프로그램, SNS 이벤트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겨울 시즌제품 판매 강화에 힘썼다. 넥센타이어가 공식 후원하는 다양한 동계 스포츠 대회는 아시아는 물론 유럽, 북미 지역에서 오는 3월까지 개최된다. 카자흐스탄·네덜란드·독일 등에서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이 열리고, 캐나다·미국·스위스·러시아 등에서는 IBSF 봅슬레이 월드컵이, 러시아와 캐나다에서는 FIS 빅에어 월드컵이, 폴란드·독일 등에서 FIS 스키점프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는 대회 후원과 함께 유로스포츠, NEE 등 유럽 인기

TV 채널을 통해 동계 스포츠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도 선보여 소비자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와 겨울용 제품의 특성을 동계 스포츠 종목과 연계하여 박진감 넘치는 영상을 담았다. 광고는 동계 스포츠 방송 기간 동안 유럽 54개국에 지속적으로 노출할 예정이다.

2016-17 동계스포츠 4개 종목 대회의 공식 후원사

넥센타이어는 대표적인 동계스포츠 4개 종목(스피드스케이팅, 스노우보드·스키 빅에어(Big Air),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점프)의 29개 대회의 공식 후원사로서 공통적으로 대회 타이틀과 로고 사용권을 부여받고, 경기장 브랜딩, 경기장 내 영상 송출, 현장 부스 운영 등을 통해 브랜드를 노출한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International Skating Union)에서 주최하는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및 챔피언십 대회 10개 △국제스키연맹(FIS: International Ski Federation)에서 주최하는 스노우보드·스키 빅에어(Big Air) 대회 7개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International Bobsleigh & Skeleton Federation)에서 주최하는 봅슬레이·스켈레톤 월드컵 및 월드컵챔피언십 대회 7개 △국제스키연맹(FIS: International Ski Federation)에서 주최하는 스키점프 대회 5개를 후원한다. 이를 통해 동계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그 열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하며,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고 대중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는 다양한 동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유럽, 아시아, 북미 전역에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첫째, 스피드스케이팅 대회에는 모태범, 이상화, 이성훈 등 세계정상급 국내 선수들이 출전을 앞두고 있다. 넥센타이어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큰 기회인 이 대회는 2016년 11월부터 오는 3월까지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독일,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최된다. 둘째, 스노보드·스키 빅에어 월드컵 대회에서 선수들의 유니폼(BIB) 및 대회 설치물 브랜딩을 활용함으로써 미디어 노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며, 이 종목을 통해 전 세계 동계 스포츠 팬들에게 젊고 역동적인 기업 이미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은 4개국에서, 스노보드 월드컵은 6개국에서 2016년 11월에서 오는 3월까지 개최된다. 선수들이 도심에서 묘기를 펼치는 슈퍼시리즈(Super Series)는 이탈리아 밀라노(2016년 11월), 독일 뮌헨글라트바흐(2016년 12월)에서 열렸으며, 캐나다 퀘벡(오는 2월)에서 마지막 대회를 앞두고 있다. 셋째, 봅슬레이·스켈레톤 월드컵 및 월드컵챔피언십 대회에서는 봅슬레이 종목의 2인조 팀(원윤종·서영우, 세계 랭킹 1위), 스켈레톤 종목의 윤성빈 선수(세계 랭킹 2위)의 눈부신 활약이 기대된다. 이 대회는 오는 2월까지 독일,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6개 국가에서 개최된다. 넷째, 스키점프 월드컵 대회는 알파인과 함께 유럽 내 최고 인기 종목으로 많은 관람객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스노보드·스키 빅에어 대회와 마찬가지로 넥센타이어는 BIB 브랜딩을 통해 브랜드 노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 대회는 오는 2월까지 진행되며 독일, 스위스, 폴란드에서 개최된다. 넥센타이어는 다양한 동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유럽, 아시아, 북미 전역에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역동적이고 친취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넥센타이어의 활약을 기대해본다.⑩



입맛 눈맛 호강 유람

경북 포항 구룡포 과메기 맛 투어

차디찬 바닷바람에 옷깃을 치켜세울지라도 쫄득한 식감의 과메기를 맛보리라. 얼어붙은
손으로 콧물을 훔칠지라도 휘황찬란한 야경을 두 눈에 담으리라. 동장군의 맹위가
제아무리 고약해도 여행자의 본능까지 잠재울 수는 없지 않은가.

글/사진 박지원, 박민우



과메기 본고장의 민낯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과메기~” 급조한 노래를 흥얼거리며 포항 구룡포 해안 도로에 접어들자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의 새하얀 포말이 시신경을 자극한다. 가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라 길모퉁이에 있는 자그마한 구멍가게 앞에 아무렇게나 차를 대고 내린다. 제법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와 안면을 때리더니 짝조름한 바다 내음을 퍼뜨린다. 챙겨 내린 카메라를 재빨리 꺼내 들고 겨울 바다에 취한 사람마냥 연신 셔터를 눌러대며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뒤통수가 찌릿찌릿 따가운 느낌이다. 뒤돌아보니 누가 봐도 가게 주인쯤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우두커니 서 있다. 장사하는

가게 앞에 이따위로 차를 대는 법이 어디 있냐며 따져 물을 것만 같다. 냉큼 차를 빼는 게 능사다 싶어 아주머니에게 어색한 눈인사를 건네고 자동차 문고리를 잡는다. 그 찰나 어디서 왔느냐는 아주머니의 물음에 서둘러 과메기 먹으러 왔다가 바다가 멋져 잠시 차를 세웠다고 답한다. 그러자 “거서 사 묵지, 뭐 한다꼬 여까지 왔능교”라며 핀잔 아닌 핀잔을 준다. 이에 “구룡포에서 과메기를 먹어야 서울 가서 자랑이라도 하죠”라고 아부 아닌 아부로 맞선다. 녀석 좋은 응수 덕택일까. 아주머니는 “젊은 사람이 쯤 아는가배. 과메기 카면 구룡포지예”라며 과메기 덕장 몇 곳을 알려주고는 맘이 동하면 가보라고 한다.

점방 아지매의 말처럼 구룡포 하면 과메기가 떠오르기 마련이다. 초등학교 국어책의 철수라고 하면 단짝인 영희가 연상되듯이 말이다. 알다시피 구룡포는 겨울이면 전국의 미식가를 불러 모으는 과메기의 원조 고장이다. 원조라는 칭호에 걸맞게 매년 이맘때 구룡포는 지천에 널린 과메기 덕장이 진풍경을 연출한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옥빛 바다를 배경으로 해풍에 꾸덕꾸덕 말라가는 과메기를 보고 있노라면 무엇보다 침샘이 폭발하고 만다. 원래 과메기는 ‘관목청어’라고 해서 꼬챙이로 청어의 눈을 꿰어 말린 음식이다. 먹고살기 힘들었던 시절 동해안 지역 사람들은 처마 밑에 묶어둔 청어가 적당히 건조되면 먹곤 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청어 어획량이 줄어들자 청어 대신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과메기의 풍미는
재료, 손질, 바람의
3박자를
고루 갖춰야 한다.

구룡포에서 청어 과메기를 맛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드물지만 청어를 취급하는 덕장이 구룡포에 있고, 구태여 덕장이 아니라도 죽도시장에 가면 구입할 수 있다.

해풍에 익은 제철 과메기

“양질의 꽁치, 손질 방법, 해풍, 이 세 가지 요소가 과메기의 맛을 좌우하지요.” 과메기 익는 향을 따라 발걸음을 재촉해 찾아간 ‘최가네구룡포과메기’ 덕장. 이곳에서 만난 최호등 대표가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 과메기와 동고동락한 지도 벌써 십수 년째다. 그는 제대로 된 과메기의 풍미는 재료, 손질, 바람의 3박자를 고루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철분 함유량이 높은 꽁치는 9~11월에 잡혀요. 다른 시기에 잡은 꽁치로는 과메기의 참맛을 낼 수 없지요.” 최 대표의 덕장에서는 부산과 남태평양에서 잡아 올린 꽁치를 쓰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것과 달리 150g 이상 되는 1등급 꽁치만 취급한다. 손질은 최 대표를 비롯해 부모님의 비법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숙련된 작업자들에게 맡기는데, 꽁치의 내장 등을 제거한 후 해수에 두 번, 민물에 한 번 세척하는 과정을 거쳐 덕장으로 향한다. 덕장으로 자리를 옮긴 과메기는 염분 섞인 바닷바람이 타 지역보다 많이 불어오는 구룡포의 이점을 활용해 3~4일간 건조한다. 최 대표의 덕장은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해안에 덕장을 마련하면 자동차 매연에 노출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눈이나 비가 내리면 실내 건조장으로 신속하게 옮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과메기는 손질 방법에 따라 통마리 과메기와 배지기 과메기로 구분한다. 통마리는 말 그대로 20마리의 꽁치를 통째로 새끼줄에 엮어 2~3주간 말리는



과메기다. 3일간 쬼고 4일간 따뜻한 날씨에 말려야 하는데, 근래 삼한사온 현상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통마리 과메기를 찾는 이들도 급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 대표의 덕장에서는 지난해를 끝으로 통마리 과메기 생산을 중단했다. 배지기는 머리, 내장, 뼈를 제거해 3~4일간 말리는 것으로,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과메기가 다름 아닌 배지기다. 향토 음식에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음식으로 거듭난 과메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간단하다. 배춧잎에 김을 깔고 그 위에 생미역에 들들 말아 초장에 푹 적은 과메기를 얹은 후 실파와 마늘 등을 곁들여 입안으로 가져가면 된다. 쫄득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모리(국수)를 아십니까?

구룡포의 또 다른 맛으로 ‘모리국수’를 들 수 있다. 과메기와 함께 명물로 등극한 모리국수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얼큰생선칼국수’. 그 독특한 이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다. 사실 ‘모리국수’라는 이름도 잘못된 말이라 한다. ‘모리(森)’란 일본어로 ‘많은, 무성한’이라는 뜻인데, 이미 일본에서는 ‘소바’를 만들 때 면발을 둥글게 말아 면 위에 면을 얹어 포갠 것을 ‘모리’라고 했으니 ‘모리국수’는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 하지만 현지에서도 그 어원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국수가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모리겠는데~”라고 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알려져 있다. 구룡포 뱃사람들이 주로 먹었다는 모리(국수)의 주재료는 이곳 사람들이 ‘미역추’라고 부르는 ‘미역초’. 곰치, 물메기, 도치, 아귀 등과 함께 못생겼지만 맛은 좋은 별미로 통한다. 구룡포에는 국숫집이 여럿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는 주재료가 각양각색이다. 아귀를 사용하는 집도 꽤 있단다. 양푼에 갖은 생선을 넣고 얼큰한 양념에 칼국수를 넣어 끓여내면 모리국수의 진한 맛을 볼 수 있다. 칼국수와 생선살, 국물을 어느 정도 먹은 후에는 밥을 볶아보자. 또 다른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국숫집마다 가격은 제각각이나 2인분 이상 주문이 가능하다는 것.

밤바다 황홀경에 풍덩

과메기와 모리국수로 입이 호사를 누렸으니 이젠 눈이 호강할 차례. 지척에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가 등지를 틀고 있다. 영일대해수욕장 전망대의 야경을 마주하러 가야 하지만 해가 떨어질 시간도 조금 남았으니 쉬이 지나칠까닭이 없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랴. 단숨에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앞에 섰다.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는 100여 년 전 일본인들이 살던 일본 가옥이 온전히 남아 있는 명소다. 골목을 구석구석 돌아보니 시곱바늘을 뒤로 돌려놓은 듯하다. 마치 검을 든 일본 남인이 목조 가옥의 문을 박차고 나와 “오마에와 다레다(너는 누구냐? おまえは誰だ)”라고 외칠 것만 같다. 구룡포 근대역사관도 둘러보고 야경을 보고자 영일대해수욕장 전망대로



향한다. 포항에서 야경을 고집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누각인 영일대해수욕장 전망대가 생긴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찾아가보지 않았다는 일종의 직업의식에서 비롯된 자책감, 그리고 한겨울의 황량함으로 자못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기분을 형형색색의 따스한 빛으로 초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경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해가 저물고 도시에 어둠이 깔리자 화려한 빛으로 치장한 영일대해수욕장 전망대가 추위에 사그라진 심신의 기운을 한껏 고조시킨다. 낮보다는 밤에 더욱 신비로운 모습이라더니, 두 눈으로 만끽하고 있는

이상 부정할 이유가 없다. 80m에 달하는 영일교를 걸어 전망대인 해상 누각에 오르니 흡사 바다에 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어디 그뿐이라. 바다 건너 포스코의 야경도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환상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다. 여태 포스코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견인한 잿빛 공장이란 선입견만 갖고 있었는데, 회색빛의 거대한 공장을, 공장의 거친 굴뚝을, 굴뚝의 새하얀 연기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날이 오고 말았다. 짧은 해가 마냥 아쉽고, 뻗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에 몸서리치는 한겨울의 절정이지만, 이 모든 것을 보상해준 야경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¹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입문과정 최고의 타이어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지난 연말 넥센타이어에 신선한 바람이 불었다. 2016년 하반기 공개채용이 진행돼 59명의 신입사원이 합류했기 때문이다. 후배를 맞이하게 된 임직원들부터 막내 자리를 내줘야 하는 사원들까지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다.

글 임광현(인재개발팀) 사진 김수엽(인재개발팀)



2016년 공개채용은 넥센타이어의 브랜드와 기업 이미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1만 2000여 명이 지원해 16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평균 20%에 달했던 면접 결시율이 예년과 달리 0%를 기록해 넥센타이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신입사원들은 지난해 9월 시작된 채용 일정을 마치고 12월 12일부터 넥센인으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경북 경주의 연수원에서 2주간의 입문 과정을 수행하고 넥센타이어의 역사와 인재상, 신입사원의 태도 등에 대해 숙지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더불어 창녕공장, 대구PG 등을 견학하며 연구·생산·영업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했다.

입문 과정 2주차에는 ‘우리는 N-People’이라는 주제를 통해 열정과 패기, 젊음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을 내재화한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입사 3년 차가 돼 각 팀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 중인 2014년 입사자 선배들이 연수원에 방문해 후배들이 준비한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내에서 겪은 일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넥센인으로서 신입사원들의 유대감을 높이는 귀중한 경험을 선사했다.

연수 과정 중에는 <헬로우 넥센> 2017년 신년호 표지 촬영도 진행됐다. 표지 모델로 나선 7인(황재창·권근희·이도연·오소민·윤지원·이진우·지성태)은 신입사원다운 패기와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표정을 보여줘 취재팀의 환호를 받았다.

2016년 하반기
입사 동기들
모두 파이팅!



OE개발2팀 황재창 사원은 “입문 과정을 통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애사심이 커졌습니다. 동기들끼리 깊은 우정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회사 생활에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을 도와 ‘잘 팔리는 타이어’ 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라는 다부진 각오를 보였다. 제품디자인팀 권근희 사원은 “선배들과의 N-Talk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친절하고 세세한 조언 덕분에 회사 생활에 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넥센인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드러냈다. 인재개발팀 이도연 사원도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동기들과 머리를 맞대고 땀 흘렸던 N-People 프로젝트는 잊을 수 없는 교육이자 소중한 추억입니다. 넥센타이어의 신입사원다운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입사 동기들 모두 파이팅입니다!”라는 응원을 보냈다.

신입사원 59명은 12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며 넥센인으로서의 도약을 시작했다. 이들이 넥센타이어의 새로운 일원으로 성장해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도록 모든 임직원이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기대하며 신입사원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⑩





넥센타이어의 CSR 활동기

이웃愛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습니다

넥센인들이 손수 김장김치를 담그고 겨울나기에 꼭 필요한 난방용품을 준비했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더욱 의미가 깊었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기꺼이 활동에 참여한 넥센인들은 아름다웠다. 앞으로도 넥센타이어의 나눔 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글 권지영(기업문화팀), 조병래 사진 권지영, 서봉섭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갚기 위해 넥센타이어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한 차례씩 양산공장 소속 넥센인들이 준비한 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넥센타이어의 CSR 활동이 더욱 깊이 뿌리내릴 예정이다. 11월 22일 양산공장 인근에 위치한 양산노인실비요양원. 넓은 공터에 흰 앞치마와 비닐장갑, 비닐모자, 마스크까지 장착한 그들이 나타났다. 1000포기 배추를 세심하게 버무리고 포장한 다음,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이 오늘 그들의 미션. 양산공장 전 부서에서 신청을 통해 50명의 직원들이 기꺼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나섰고, 강호찬 사장을 비롯한 임원 6명도 함께 자리했다.

김치에 정성 가득 담았어요

절인 배추와 양념을 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를 중심으로 양 옆에 50여 명의 넥센인들이 나란히 섰다. 평소 김장을 해본 경험이 없어 해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 포기, 두 포기, 손을 거칠수록 더 맛있게 생긴 김치가 만들어졌다. 요양원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등장해 “맛 좀 보자” 하고 다가서자 직원들은 양념과 배추를 한입에 먹기 좋게 말아 내밀었다. 맛을 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만하면 훌륭하다”라고 말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줬다. 김치 속 버무리기에 여념이 없는 임직원들 틈으로 들어가 소감을 물었다. 밝은 표정으로 “재밌습니다. 직원들에게 술선수범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하고 답한 강호찬 사장은 특별히 김장 전문가라며 글로벌생산본부 이재수 부사장을 치켜세웠다. 이 부사장은 “작품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하며 함께 웃었다. 알고 보니 “머리털 나고 김장은 처음입니다”라는 이 부사장은 점차 전문가가 되어감을 느낀다며 “오늘 김장을 해보고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하고 훈훈한 메시지를 남겼다.

1000포기가 결코 작은 양이 아님에도 맛있는 김장김치를 전달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인지 오후까지 예정돼 있던 김장은 정오 무렵 모두 끝났다. 100개의 김치 상자를 단단히 봉한 다음 앞치마를 채 벗기도 전에 모두 모여 이 순간을 기념한 단체 사진을 찍었다. 이후 임직원들은 갓 담근 김치와 수육, 밀반찬들로



김치 상자를 단단히 봉하고 앞치마를 벗기도 전에 모두 모여 이 순간을 기념한 단체 사진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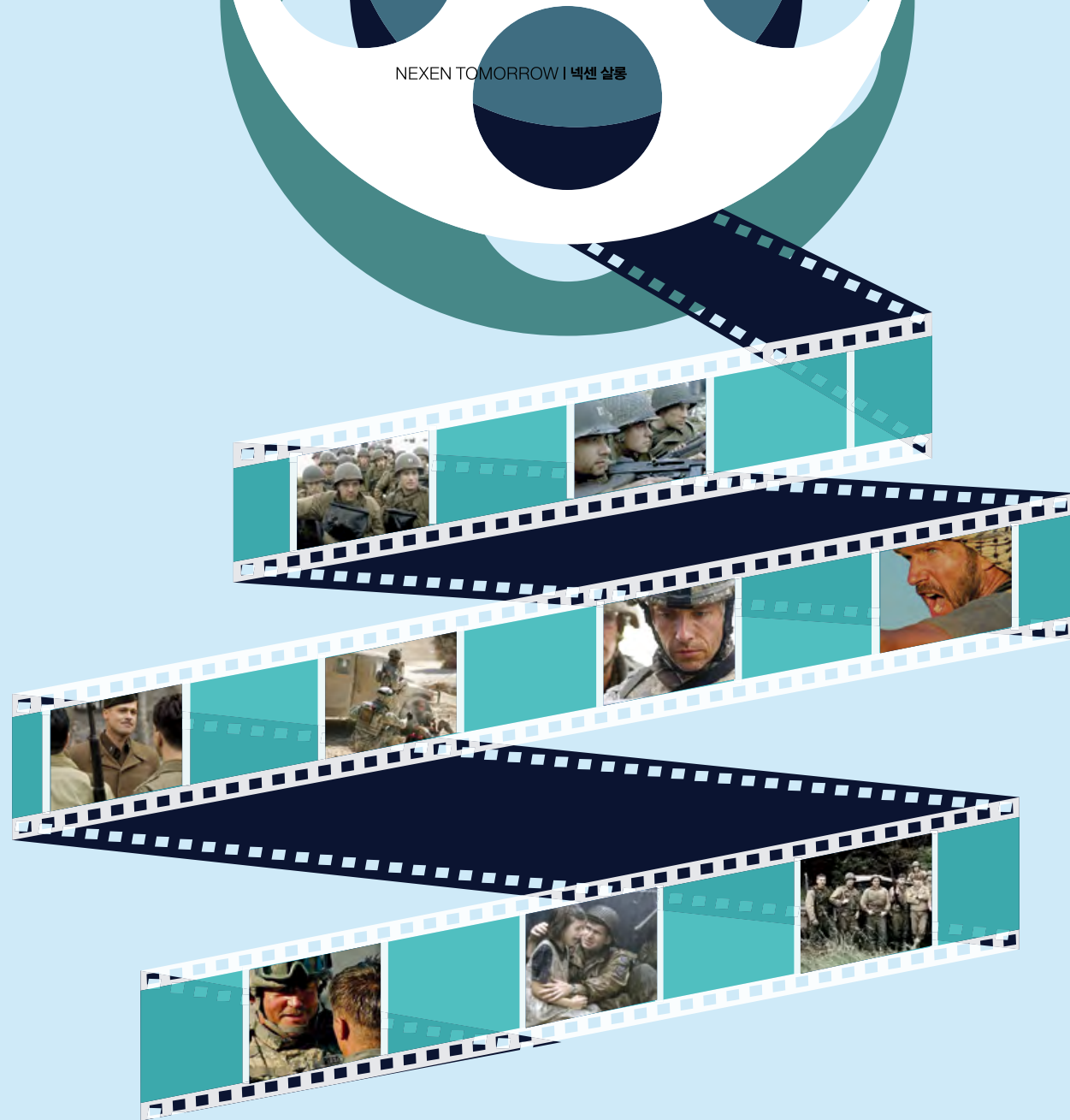
점심식사를 하며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끝난 오늘
 봉사활동을 되짚어봤다. “다음번에는 김장 5000포기
 담가야겠어요”라는 강호찬 사장의 의견이 나왔다. 옆자리에 선
 직원들은 “그날 사장님 불참하시는 것 아니죠?” 하며 농담을 던져
 모두가 박장대소했다. 옆자리에서 무척 즐겁게 이야기 나누며
 식사하던 윤자영 김파운드개발1팀 사원에게 동료들과 함께한
 소감을 물었더니 예상외의 답이 나왔다. 절친 그 이상으로 보였던
 동료들이 사실 오늘 처음 이야기 나누는 타 파트 직원들이라는 것.
 “영혼의 짝을 만난 것 같아요”라고 말할 만큼 죽이 잘 맞는 동료가
 생겼다니 봉사활동의 또 다른 긍정적 효과가 아닐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벅센인들 사이로 다가가 소감을 물었다.
 글로벌품질센터 김홍상 상무는 “저는 매년 식구들과 함께 김장을
 담가서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절인 배추를 나르고 수육을
 삶아서 나르는 보조 역할이 제 몫이죠. 보조가 중요한 것은 더 말 할
 필요 없죠?” 라는 말로 주위를 웃게 했다. 품질보증팀 이성배 과장
 또한 첫 김장 봉사활동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계속 서 있으니
 등허리가 아프긴 하지만 좋은 일을 해서 행복합니다.”



난방용품에 따뜻한 마음도 담았어요

열흘 후인 12월 2일에는 경영운영본부 이현중 전무를 비롯한
 양산공장 임직원 25명이 모여 양산시 안전관리공단에서 난방용품
 키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곳에서는 담요, 라면, 즉석밥 등
 10종의 난방용품을 준비해 차곡차곡 나눠 담고 포장했다.
 양산 내 200가정에 전달될 상자를 만드는 임직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우리 지역 소외
 계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길 바랍니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장김치와 난방용품 키트는 양산시청과 양산시복지재단의
 협의를 거쳐 지역 소외 계층에 전달됐다. 봉사활동 진행을 담당한
 기업문화팀 송준우 대리는 “벅센타이어의 조직이 개편되면서
 옮겨올 양산공장 전 부서에서 참가하는 봉사활동을 처음
 기획했습니다. 첫 행사라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직원들이
 더 큰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라고 당부했다.❶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영화에서 배우는 궁극의 팀워크 BEST 3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만큼 팀워크에 잘 어울리는 말이 또 있을까.
한마음 한뜻으로 팀워크를 발휘해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전쟁,
그 속에 숨은 전략과 전술을 찾아볼 수 있는 전쟁 영화 BEST 3를 소개한다.

글 이영한 칼럼니스트

1위 바스터즈 : 거친 녀석들



©와인스타인 컴퍼니(US)
유니버설 스튜디오 인터내셔널



합리성: ★

자율성: ★★★★★

논리성: ★★

목적성: ★★★★★

협동력: ★★★★★

총합 : 17점 / 25점

개봉 : 2009년
연출 : 쿠엔틴 타란티노
러닝타임 : 152분
출연 : 브래드 피트,
크리스토프 왈츠 외

때는 독일이 유대인을 무차별 학살하던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유대인 출신의 미군 엘도 레인 중위(브래드 피트)가 한 부대의 리더로 등장한다. 이른바 ‘개떼들’. 부대 이름에서 풍기듯 이 부대의 팀워크는 이분법적 분노와 강력한 목적의식에 뿌리를 둔다. ‘나치 XXX들 싹 다 죽여뵈다’라는 목적의식 말이다.

팀원 간 공유되는 강력한 목적의식은 리더의 합리성과 논리가 다소 결여되더라도 목적의 명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때문에 팀원은 생사가 오가는 무리한 전술에도 리더의 일장 연설 같은 설득 따위 필요 없이 그냥 시키면 그대로 실천한다. ‘까짓것 까라면 까는 것’이다. 왜? 강력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들 부대에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겁쟁이 병사나, <태극기 휘날리며>의 원빈처럼 전장에서 도망치고 숨어서 우는 군인은 등장하지 않는다. 도망가거나 회의를 품는 팀원 없이 성실히 또한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팀워크 1위 영화로 꼽았다.

현실과 영화를 비교해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기업문화에서 각 팀원의 자율성과 논리성, 합리성이 조직의 핵심 동력이라고 보는가? 팀원이 팀장을 설득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중단하는 것을 경험한 적 있는가? 대부분 고개를 저을 것이다.

관료제 조직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리더의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여러분의 상사는 합리적이고 논리의 소유자인가? 이 역시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뽑은 팀워크 베스트 1위 영화인 이유다.

각 항목별로 다 0점이더라도 강력한 목적의식, 그거 하나면 조직 운영이 대부분 순조롭게 풀리기 때문이다.

자율성이고 합리성이고 간에 ‘나치 XXX들 다 죽여뵈다’는 공통된 목적의식만 명확하면 어떤 기업에서라도 팀원 이탈이나 문제 없이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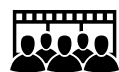
2위 라이언 일병 구하기



©UIP 코리아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미 행정부는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던 중 한 가정의 네 형제 중 세 아들이 이번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 행정부는 홀로 살아남은 막내아들 라이언을 안전하게 구해오라며 군에 명령을 내린다. 밀러 대위(툼 행크스)는 여덟 명의 팀을 꾸려 일명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임무를 수행한다. 그는 직장으로 치면 팀장 정도의 위치다. 밀러 대위는 좋은 팀워크를 위한 교과서적 인물이다. 매사가 FM이고 완고한 인상이다. 심지어 죽은 미군들의 시체를 조립해 만든 인조인간이라는 소문이 떠돌 정도. 하지만 유머 감각과 자상함을 갖춘 팔방미인 군인이며 인간적인 매력도 있다. 팀원 웨이드가 전쟁 중에 죽음을 맞이하자, 라이언이 울분을 토하며 서로의 얼굴에 정답게 총구를 조준하는 살벌한 사태가 벌어진다. 밀러 대위는 이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숨겨왔던 자신의 평범한 과거를 공개하며 분위기를 쇄신한다. 나 역시 너희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국민이라고….

“라이언… 난 라이언이 누군지도 몰라. 나한테 의미 없는 사람이야. 그냥 이름뿐이지. 하지만 라멜에 가서 그를 찾아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 내 아내에게 돌아갈 자격을 주는 일이라면… 그러면 그건 내 임무고, 우리의 임무야.” 밀러 대위는 이 대사로 흥분한 라이언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한다. 수전증이 심해 오른손을 떨지만, 사기 저하를 우려해 팀원들에게 숨기는 모습도 보이는 매력적인 군인의 표상이다. 직장인으로 치면 과장·차장급인 마이클 호바스 중사는 밀러 대위의 오른팔이다. 그는 천상 군인으로 군말 없이 대위를 보좌한다. 나머지 팀원은 이해타산이 빠르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리처드 라이언 일병(대리급)은 “아니 한 놈 살리자고 여덟 명이 목숨 거는 게 말이 된다고 봐요?”라고 말하며, 다니엘 잭슨 이병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친구 조화를 통한 팀워크 향상에 참고하기에 좋은 영화다. 자세한 갈등 해결 방식은 영화에서 확인하길.



합리성: ★★
 자율성: ★
 논리성: ★★
 목적성: ★★
 협동력: ★★
 총합 : 16점 / 25점

개봉 : 1998년
 연출 : 스티븐 스필버그
 러닝타임 : 170분
 출연 : 톼 행크스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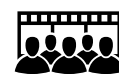
3위 허트 로커



©서밋 엔터테인먼트

〈허트 로커〉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폭발물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EOD팀에 관한 이야기다.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먼저 팀장급인 제임스 중사(제레미 레너)는 폭발물 제거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환경 불문하고 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변명이나 핑계 없이 맡은 임무를 기필코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전형적 마초 스타일 리더다. 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샌본 하사는 모범생 군인이다. 팀 내에서 과장급인 그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 임무 달성에 때로 필요한 선 조치나 위법을 이해하지 못하며 원칙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제임스 중사가 팀 임무 수행 중 샌본 하사의 무전을 차단하자 임무가 끝난 후 그에게 다가가 주먹을 날리는 하극상적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엘드리지 상병. 그는 수동적이고 겁 많은 연약한 화초 같은 인물이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성장하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들의 팀워크와 유사한 사례를 중소기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기 전설과 경험만 믿는 팀장과 그가 맘에 들지 않는 경력 차이 안 나는 원칙주의자 차장.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복사 및 전표만 입력하는 사원 말이다. 〈허트 로커〉EOD팀에서 배울 점이 많다. 영화 중후반부에 가면 이들은 서로 특성을 이해하고 자 주먹다짐도 서슴지 않고 부딪침도 꺼리지 않는다. 이후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한다.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상급자의 말에 그저 따르는 게 아니라, “거, 시방 무슨 소리요!”라고 응수하는 적극성과 애사심. 어쩌면 하극상이며, 유교적 상명하복 기업문화에서 수용하기 꺼림칙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배가 산으로 가는지, 산이 배로 가는지 모를 지금의 현실보단 차라리 액땜 삼아 서로 정답게 주먹을 공유하고 배가 기울지 않도록, 또는 위급한 상황에 7시간 동안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업을 위한 진정한 ‘구명조끼’이지 않을까.👊



합리성: ★
 자율성: ★★
 논리성: ★
 목적성: ★★
 협동력: ★★
 총합: 14점 / 25점

개봉 : 2008년
 연출 : 캐스린 비글로우
 러닝타임 : 130분
 출연 : 제레미 레너,
 안소니 마키 외

2017년 신년호 〈헬로우 넥센〉 참여 후기

신년호 제작에 참여해주신 넥센타이어
사우들의 따스한 후기, 함께 읽어요.



위 아 더 넥센
(창녕) 품질검사파트 | 한은수 파트장

첫 인터뷰라 많이 떨었는데 다행히 편안하게 촬영했습니다. 품질검사 파트 모두가 함께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해요. 이번 사보 출연을 계기로 연예인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먼 길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주신 〈헬로우 넥센〉 사보 담당 자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대 : 담하다
영업관리팀 | 최원석 대리

자취 생활하는 직원들을 소재로 코너를 만든다고 해서 신선했어요. 자취하는 동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노하우도 더 알게 되고 서로의 고충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차가운 겨울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패밀리 데이
(양산)PCR파트 | 나상출 조장

아이들 손잡기에 익숙한 우리 부부가 사보 촬영 덕분에 손을 맞잡고 환한 웃음으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했어요. 오늘처럼 웃으며 서로 배려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책자가 신년호로 발간된다니 우리 가족에게 2017년이 더욱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넥센타이어 가족 모든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위 아 더 넥센
(창녕) 품질검사파트 | 시병진 대리

사보 참여 기회를 주신 〈헬로우 넥센〉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파트의 역할과 구성원을 알리고, 부서원들 장점 자랑, 신년 덕담을 나누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고 가족 같은 창녕공장 품질검사파트가 되겠습니다.



대 : 담하다
성과혁신팀 | 김한수 사원

사보에 나간다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2~3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덕분에 혼자 사는 방법도 서로 공유하고,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자취 인생 초기, 좌충우돌하던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도 종종 모여서 술이라도 한잔 합시다!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 회사, 팀 내 이슈 자랑하기
-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 ▶ 동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독자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독자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헬로우 넥센〉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김희진 대리

02-3480-0369 hellonexen@nexentire.co.kr

지난 호 정답



퀴즈 당첨자

이현정	인천 남동구 예술로	김규섭	전북 진안군 정천면
박장수	부산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조봉진	전남 여수시 대치길
강현숙	경기도 시흥시 능곡중앙로	김대현	충남 서천군 서면
강미아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길	조성호	경남 양산시 물금읍
정창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김장연	경남 양산시 양주로

눈길에 강한 타이어 **WINGUARD**

넥센타이어가 동계스포츠 4개 종목 국제 대회를 후원합니다.

OFFICIAL SPONSOR OF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

고객만족센터 ARS 1577-2781 / 서울서비스센터 02-6671-7003

www.nexentire.com